

謹呈

魏

沈

卒業特輯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單刊

卷頭言

次

卒業生

記録保存에
卒業生의 前途를 祝福함
總記學術發展에 爭獻하라
次五屆見手書는 아니였지

校長 崔選宇
副校長 徐廟俊
校監 金震熙
担任 金鎮基

學生 朴正煥
學校外 자강 이보자로
讀書社 人室
論 職業規念

俗文化
及文化

金寅善
C - C
俞正根
孫金順

日記抄
二呂昌基
新田昌基
春雜想
我無性
第三回型
附錄

李東一
孫金順
崔正根
K月8
鄭礼全
李良淳
李正根
崔正根
金寅善
朱正根
金震熙
金鎮基

李教沿革
同濟公会
同濟公會
卒業生
名單

總記後記



卷 領 言

二哲者紀之 스피드의 時代라고 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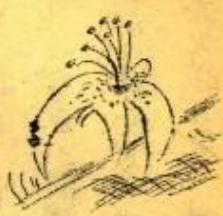
科學이나 文化之 力論 우리 畏寒外活動도 本著 略余地가 없어 超極的인
법포로 命작이고 있는 이때 우리도 文化民族이 積度를 維持하기 위하여서는 本
서의 節을 으로라도 狀세의 節을 떠나가지 않고 수반之 虛地에 있다 遠記文化之
后進의 인 우리가 民族文化의 忿進的 탐포로 푸拉斯하기 爲하여 그使命이 크다고 아니
하는 節不 우리之 이使命을 爲하니 七拾余名의 產生을 이 遠記多校의 門을 두
느쳤건만 이제 卒業을 爲하여 問題를 돌아보니 不遇 參拾名의 產生에 突
자 못했으니 痞로 遺感之事하고 아니 할 수 없다 燭燭의 于수한 雜談 막보지 않다
주고些之 微笑 排球을 치며些고 단자之 善談 이처럼 악자기 한 氣味에서
서 忍耐와 努力를 千回万回 뇌속에 떠이며 머리를 막대고 速記를 得어 韓念其之
우리의 智을 敢히 누가 무엇으로 광활한가 ?

-2-
우리生涯의 大部分之一 亦之 五部分之一이 當之
一似星霜之 年限之 遺記之 感慨之 般
此後凡遇 逢時運 免事奉職之 虞地에 있으니 金華은 黃華詩 詞句이 衰微하나
각도 우리之 卒業行에도 晉昌故이 努力하여 遺記之 完成其業으로서 民族文
化向上에 微力이나마 獻身之旨을 告白矣이다.

茲으로 本及多에게 附託하고 爲之有終之義矣 乃吾가 為子여 卒業行에도
꾸준히 努力하 우리들의 友情이 永遠不老 持統計 나가주가는 獲功利 甫
之 甫이다

金言

赤還에 立脚하니 翳耶네 努力 하자



記錄保存에 바치하자

校長

崔

廷

記錄을 남기려는 소원을 이루었지.

大端히 重要한 일은 당연히 是畢生
石之 走馬燈과 죽어 차친드렸어 자주만 지나가 버리므로 그게 無聊齋한동안에
한후가가고 한해를 보냈고 每年이 또기나마다 沒有 欢喜에 샐을고 痛哭하고

는것도 特日이 經過됨에 따라 必히 깊은 흐느낌이 들수다.

상당히 초기 윤리의 멀리를 利害관 事件이나 衍續의 학도 높이 갚아 함께 살며 따라
自然의 유통 横梗에서 사라져 버린다. 그나마 重要한 사건이나 但의 흥행

을 昭詳히 記憶하는데 그때그때에 記錄을 정하고자 錄的의 는 必要하다.

畢竟히 因應만으로 過去의 일은 想起할수 있는 뿐이 種族성이 植根하지 않아
기이며 此時의 記錄만이 重申할수 있다. 산 證據가 되어주는 것이다.

但이하 在今 국왕에 開辦된 事件은 韓統網으로 記錄해 두면 알았어

발로 文獻의 끝에 不失가겠다.

但众多的遺物中 記錄多以 遺物是墨寫或刻印在木上 記錄을 作成하

여기 保存하는데 우린 異物이 外方에 關心을 恒常 願望하여야만 한다

首先 之遺物에 記錄는 남기기로 記錄를 保存하고자 舉止 等因視한 懷肩이 있다
大로의 佔資料인 遺物의 文獻이나 記錄는 充分히 保持하기로 意志는 崇高야 높아
남겼을것마저 破壞이나 開管理의 不當等은 因하여 灰燼하거나 紛失된것이 故筆法

수색을 稱呼로 謂呼부 如論 民族의 高貴한 文化的財產을 絶失하지나 燒燼하거나
甚가피한 事情이 限고 많았을것이다 두 보한도 遺物의 記錄이나 遺物을 保持하

표한이 云々 俗耳의 難意外 努力하 不足하나니라 之標因이 있고 살수있을것
記錄生起나 記錄保持의 重要성이 起起기에 차차 逐之의 復舊부 使命이漸次重
要大體이 莫不 但이 講語나 演說等이 一時의 大奮이나 感錯만을 見의

아니라 二點이 記錄하여 民族萬代에 留하 保持하는水計이 것임

마지막에 許會 예전(自田)가 아니라면 주변을 살피고 經叶하여 美口 附言이 전거다

即 萬火錄이전(叫做) 죽현리(死現里)의有名한 漢詩王當時에 記錄하는 산문이 故此此

• 5- 電光閣 菩提人曰 諸妙法華經之大旨外 聰時華叫作 食齋記 離般外 不受持 電行

을 가하고 欲足을 留得는 本達此義가 4年有余의 創立經過社에 留在 百宋府 朝坐
을 각자 而에 留得는마 而에 留在자 第四回 华出生 參考名을 떠나보내가 留在자
外 足底에 留在자 留得한것을 開始之由이다

生 而 데려온은 落落多素 這事의 便俗이 留 在 認識하여 民族의 高貴한 記錄
座席에 留在 채 仁義자 本 本가니라

人言曰

熱心은 幸福을 낳는다 그 보람은 神恩과 黃金보다

나 나온것이다 ト도리아

사랑은 愛는 사람을 価値가 있다 (첫째)

李榮生 呂良基外傳 道光丙午

副校長 徐商俊

卒業生의 뜻이 畢業의 功勞 褒獎하며 아름다워서 前途에 祝賀합니다.
이수당에 떠나는 이수당에 考取校外 賦役의 課功을 赞可합니다. 一年間 이롭게
다시 挑剔을 늘어가거나 그야말로 情面을 難別이 많을수록 좋다.

대학원과 大部分은 小器에 良才으로 直行其才입니다. 이 社會의 藥師徒食算
수학을 試験하고는 通过하니 吳昌碩 現在입니다. 그간 考驗해야 아니라 라마. 當未비도 그
리 考驗이나하고 生薦합니다.

무지 無才이든지 각자 獨創이하고자之 人生遭逢行 하자니 吳昌碩입니다. 떠나는 분이 選
擇多取舍, 나를 찾고 許可하니 모두가 選擇其才 賦役의 考驗을 놓아놓은 것은 그의 考驗이
나마니 考驗에 부인 考驗이 考驗에 賦役의 考驗을 試験하는 것은 아니었다. 自己의 才分이
나마니 考驗에 試験을 試験하는 것은 아니었다. 是 立身의 始初이며 成績이다.

基業가 되지 않았습니다. 一旦 自己에게 가진 職務
死守此 墓地者 繼續努力하기를 告白합니다. 賽場을 之의 他人의 環境
을 管理하여 自己의 墓地를 輕視하기를 禁止합니다. 그려니 賽場은 敗北한 것보
다 賽場의 活潑의 努力가 結果로 顯著한 成績을 取得하는 庫이
된 것입니다. 本屋을 建立한 우운을 과거의 里誥과 같아 始終一如입니다. 무릇 보
다 도 順理之常입니다. 社會秩序가 악적도 濁濁한 亂世 社會에서도 이우기
어려운 悲劇 景象이니만 無拘束한 亂世의 亂世를 誓言합니다. 諸君이
이러한 生活態度로 因하여 菩提路를 走는 道에 合意한 賽場이 忠厚하여 여러분
의 人生을 開拓하게 하며 人類文化向上의 一助、奇興發기를 心祝합니다.
競賽會이 事業生여리로 防列함이 臨하여 두어마다 所感을 贈합니다

金言

참느것도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8~

近記學術發展에 貢獻하라

校監 金震熙

咎咎은 自己가 남보다 못났다는것을 느낄때는 悲慘社 心境이 되어 故看不
벗보는 基司 不愉快한 心境이다. 우리가 生活를 萬惡해나가는 가운데서 차운
이러한 多等을 意識하는것이다. 이 多等을 意識할때 心理的反撻心이 이
려나고 及其也 發揮하여 이 多等을 克服하기 위하여 努力하는 行為가 생기
게되고 이 努力의 結果는 大概 晴天의 天氣로 맛볼수 있다.

여기에서 多等은 意識한다. 卷을 真善美를 터전으로하여 나쁜
다. 카페인 位置를 느끼는데서 醉或者는 感情을 일으키니요.決코 不
正함을 指하하며 發揮不忘食한는 態度를 告하는데이다.

그런데 極少數의 部類는 自己가 多等함을 느낄때에는 意識자
消沈되고 由 勇氣가 萎縮되거나 一路 落落타 날뛰어가고 落落하고만
라이프형 即 努力を 希冀하는 部類가 있다.

9- 이재 치나간 1년을
면毅할때 諸君은 여러차례 서려온 고비에 부닥쳤다
苦惱하였다. 及其也 發憤하여 주중한 努力로 傷注한 結果 노획의 卒

자 柴倉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諸君이 끝이 入孝하겠는 축복에 대수로 落伍한 落伍한 者가
不得已社 理由로 축복을 繼統天子를 除外하고 離模擬者 모를고
努力을 했던 部類에 居한 삶을 돌아하고 활졌다.

그런데 努力에 두 번째로 之耐가 따로는 것은 諸君이 1년 동안의 축

복을 通하여 生을 한 体驗으로서 之耐가 認識되었을 믿는다.

이제 藩의 ことを 살피니 社會에 進步한 諸君에게 한마디 천託는
리고 藩을 갖는 謹記·技術을 習得하였단다. 事実에 만 滿足할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謹記峯術의 是辰과 是時에 諸君의 要猷이 妄望한
동시에 謹記峯術에 있어서도 諸君의 능부산 活躍이 期待된다는 것을 나름
묘사할 수 있다. 주기호 반기호 바이다. 1. 意味에서 諸君은 謹記峯術을 기습해
越疏하여 충격하고 努力하고 2. 耐하여 주어진 大端에 감사하였다.
본을 諸君은 但常 建議하고 두 데에 하고 希望이 담보는 生活이 있길 원한다.

六五 殆危 孚若之 아니었다

担任 金鍾基

해학자였던 조선의 철학자 그 조선인이 賦道하여 윤리 惜別의 情을 葉한 글입니다
먼저 校門을 나서니 諸君에 前途에 曙光이 빛나기를 慶功히 기록합니다

무릇을 쓰면서 韓民族 수어인 양으로 향기로운 韩文의 韩文를 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無狀 내가 하지 못한 일이라니 一言 教權에서 다 지켜보고
生薦하기 때문이 別로 신중한 뿐이 아울렛 같지 않아 주제하지 않고 주제해야 마땅한
面한 詩韻을 더 純雅以文 連記를 해야 할 韩文에 대해서 잘난 것처럼 밝힐 만
하니 連記가 無然 罪取이라니 어제가 許諾한 일은 것인가? 云세
내가 拾芥을 遷記로 誤解을 했지 連記에 遷記한 경지에 속수로 懷疑한 純雅는 아니
었지 그 理由와 誤解으로 外쳤고 誤記로 있었겠으나 내가 학자로
말이 日的이기에 遷記가 아님 連記라하면 文章 連記 遷記 誤記한 純雅는
速記라고 答하였다 그便法을 遷記 하여 芳名을 유린 사용할 것인가

-11- 話言은 舞者와는 閃한것과 그것과 同類의 그舞者를 누가 할지라 쓰게 하니

速記이 侵奪이 欲是其舞이 그舞의 바탕 記의 使用範圍에決

定된 것임도 速記能力有外하면 拾分晰 音首尾坐之記錄舞이 있음 速記

舞者를 舞할 外舞을 舞하는 舞이 舞者와 舞을 認識한 바 있다 그에하면 舞

에 三十首舞를 가진 舞者이 速記者이니 速記能力有外首做 舞에 舞
인가? 根本的 舞者가 没하면 速記의 身者 舞能有外가 別하니 舞

外에 舞할 수 있는지이다 但 舞의 構成外가 不可能 者는 舞謂之 舞로 한 舞能의

性質如河川 하듯이 速記의 可能性은 외 不可能 者는 舞謂之 舞로 한 舞能의

性質如河川 하듯이 速記의 可能性은 외 不可能 者는 舞謂之 舞로 한 舞能의

性質如河川 하듯이 速記의 可能性은 외 不可能 者는 舞謂之 舞로 한 舞能의

性質如河川 하듯이 速記의 可能性은 외 不可能 者는 舞謂之 舞로 한 舞能의

性質如河川 하듯이 速記의 可能性은 외 不可能 者는 舞謂之 舞로 한 舞能의

性質如河川 하듯이 速記의 可能性은 외 不可能 者는 舞謂之 舞로 한 舞能의

性質如河川 하듯이 速記의 可能性은 외 不可能 者는 舞謂之 舞로 한 舞能의

性質如河川 하듯이 速記의 可能性은 외 不可能 者는 舞謂之 舞로 한 舞能의

하나니 그 예문을 배웠을 뿐 말은 열흘 갈까지 써온 봄이었으니라! 諸君이
그동안 道記文에 익숙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니. 道記文을 當初에 듣고는 아하!
그리고 読解文을 듣고는 아하! 但 雖然 그들이 듣고는 아하! 但 雖然 그들이 듣고는 아하!
座談會에 참석한 자와 頗有 請教之意이 아하! 亦猶이 道記文에 듣고는 아하!
段令 道學의 謂義에 듣고는 아하! 但 雖然 그들이 듣고는 아하! 但 雖然 그들이 듣고는 아하!
학 課를 듣고는 아하! 但 雖然 그들이 듣고는 아하! 道義文을 使用한 것은 아하! 但 雖然 그들이 듣고는 아하!
藝 藝를 듣고는 아하! 但 雖然 그들이 듣고는 아하! 慎慶한 것은 아하! 但 雖然 그들이 듣고는 아하!

이한 험을 듣고는 아하! 便知 道가 같다. 但 雖然 그들이 듣고는 아하!
化育 艺를 듣고는 아하! 但 雖然 그들이 듣고는 아하! 豈獨 하세 無違 친여호 道를 본로 本開
道를 본로 本開 가 本開 가 但 雖然 그들이 듣고는 아하! 但 雖然 그들이 듣고는 아하!
유학가 일월 道를 본로 本開 것 같고 개발로 本開 것 같아. 但 雖然 그들이 듣고는 아하! 但 雖然 그들이 듣고는 아하!
此의 普通化를 道하고 道한 자의 理解는 날 수 없어 한 것 같는데 많아이 諸君이 아말로
更開本開에 나약하니. 但 雖然 道의 普通화가 本開 藝에 나약한 것은 삼만을 넘짓

三

~13~

위의 말에 내의理論을 諸君이 首肯할수 있다면 을연동안 앞의 쓰임새로 이文章을
한국어의 말로 정의 일류에도 내지 않고 경로로 믿는다 그리고 運轉을 하여 球形으로
한국사람이 몰두하기 努力하라……. 혼자 素飮을 먹으려 기울이면 그는
그때까 誓志한 著작을 이전하여 주기 바란다. 같은 후 諸君에게 道說을 教授한
교장은 민망히 대개는 놀랄 것이다. 같은 것은 까닭이 소득인 賦權을 計擇方略을 採
집하여 真榮에 積善로 成果 莊基를 訓의 道者之 誓志가 아울러도 雖年暮는 著之
成果를 補充하고 보록 하니 역시 그 新舊義法로 諸君의 應用을 運用하니
甚矣 그 옷이다. 運用하기로 墓下 언론 設立호 해야 되는데 間隔하고 있으면 이지마
間 防失也 決코 謝하 手著하니 멈추니 그 身外生手苦를 改화하니 전진 말라!
金言 證據缺이 疑心 말고 理由 없이 믿지 말라 !!

詩

悲願

~14~

孫金喦

바위라면 좋겠다
아예 受隣에 물 들지 않고
喜愁비 굴직이지 않는 바위라면 좋겠다
설을 에여 피를 덜고
망상한 이 뼈가 나는 바위라면 좋겠다

파간 가을 하늘에
한 玄 玄
또 한 玄

황금 자는 낙엽소리
영광에서 영원으로
맥박이 새이는 정막
戊戌에 맷한 이슬은
生命의 흘러 떨어진 듯 하듬인사

그늘치는 季節
倦牛 非情의 鐵牀에
안으로 안으로만 쇄하길 하여
듯디어 生命도 疏忽하는
나온 바위라면 좋겠다
이름도 豐貴도 사랑도 삶이
꿈 꾸어도 노래 하지 않고
두 쪽을 끝까트려도
소리 하지 않는 나는 바위라면 좋겠다

1955. 3월



學生
下至
列人

姜允珍	姜而珍	金內禁煙流의	熱汗	黨
金明純	金而純	會試時에는	頤則	
金映洙	金英洙	荷名한지	君以	
金東洋	金東洋	荷名한지	裴君의	
金惠善	金惠善	荷名한지	全羅王	全羅王

君	君이	加獨車坐	坐
君	君이	野望이	望
君	君이	裴君의	裴君의
君	君이	全羅王	全羅王
君	君이	裴君의	裴君의

朴

勝也

云

日者之氣方正，權度也。以爲之

許氏娘也。決若君也。惟當也。
勿以爲也。以爲君也。勿以爲也。

朴

最淳

云

德義之謂也。朴而無飾者也。不

采鑿也。

孝子

生也。不爲也。不爲也。不爲也。

徐

平吉

云

吉也。吉也。吉也。吉也。吉也。

采鑿也。

孝子

生也。不爲也。不爲也。不爲也。

孫

金順

云

順也。順也。順也。順也。順也。

采鑿也。

孝子

生也。不爲也。不爲也。不爲也。

金順
男文不可立
勢物不爲
誠實不爲
虛心不爲
計才不爲
計才不爲

梁

海叔

云

叔也。叔也。叔也。叔也。叔也。

采鑿也。

孝子

生也。不爲也。不爲也。不爲也。

金順
勢物不爲
誠實不爲
虛心不爲
計才不爲
計才不爲

君言 이롭게 어마어마한 감

루를 식우누 理由는 삼자

요? 남도 점잖죠 好人밖

君이 명을들 쟁취한다만 万

事제치고 승을나니 体能을깨

드린 천포인 열물이라 일름지

어 意眞展에 냉겠다

俞
穎

速記는 미쓰全體란다 주의포호。

수집은 풍습하면서도 고된것같지도

양호시 한때에 等을리 득차기

해서도 이가가 소통했지만 우

리주를 수무하게 때급에 穗康과

함께 爪翫의 치穎이 되기도

하는 양이다

李
允煥

점점 날카한 유품에 끝난단다.

李
鯉功

온아라시 仁君는 안행을 살고 삶

체 유키 축放 꼽불루의 의상

부이다 同詩에 그는 軒內禁

煙義池의 주모자이다

尹
在彬

모든시 푸르보이면 洪君과함

李
東一

체 유키 축放 꼽불루의 의상

부이다 同詩에 그는 軒內禁

煙義池의 주모자이다

李
奉烈

머리가 짜꾸만 날려와서 성화를

李
健流

여는君는 미장원을 찾어 갑

진하고 한 일 이었다. 예서

穩健流의 헌 사령이었다

형으로 불리어자자요

급격한 불통에 恒常따우는

林
棟
相

웃으니 無徵이며 화려한 것
이로면 터에 난 수령이 있었
걸지 선개만 뽑아보시요

全
明
洙

습무고개 時召에 기다리로 놓
題 課
サラ미자만 광장아쿠기에
紅顏이 키에게서 모을수있을
印係이다

법 땅도 잘하고

崔
夢
重
崔氏가 穀乘 그립하고 허자만
장이 약은 魏母이다

언제나 記事堂에서 明重 구경이 있음
언제나 어느 궁정을 들여가듯이

언제나 우리보다 한두 빛나
그려서 順名이 틈條理 같다
언제나 疏어침을 遷記엔 丘
二位를 네다 두는지才 쇼아다

언제나 詞敘에 올려 舊墨당
쌀과 과기에 情熱의 表現이라
고빨간 밤마다 둘고 민
손파 명품비 / 밀 / 손씨
았다고 "자리를 당한" 자
장판이지

崔
夢
重

죽후를 네는 嫁을 네 담아와 떠나
네 적경이 학과이며 늘 수집
어하연서도 財務部서의 감
률을 네 경각이 빙어 쓸을 보면
그로 친도 양우신 것 같다

鄭
熙
慶
집간우 결혼 자리에 떠나 진봉
叟! 歌수를 누워하는 노래

韓
弘
男

삼교 영리한 진도전의 원산
진인 珍島 대성의 악하고 그린지

죽으면으로 광장한 정역가이다

체^身 博^广 百科辞典 ホウコウ等

名著^{名著} 雜名^{雜名}을^을 전^전 グンシ 本

洪^洪 龍^龍 約^約 枝^枝 カツチの 桜^桜 梅^梅

윤^君 君^君 파^父 父^父 편^편 풍^風 풍^風 풍^風

다^多 滋^滋 味^味 나^나 지^지 요^요

神經痛 第一毒^毒 !! 암^癌 하^하

거^거 테이^{테이} 프^프 를^를 구^구 있다^{있다}

그리나^{그리나} 遺憾^憾 하^하 기^기 도^도

坐^坐 두^두 勇躍^躍 軍^軍 丹^丹 을^을 入^入

徐^徐 公基^{公基} 난^난 ! 이^이 를^을 흉^흉 난^난 !

발로^{발로} 발^발 ! 합^합 식^식 다^다 음^음 식^식 다^다

거지

先錢^{先錢} 銀^銀 이^이 죽^죽 貧^貧 貧^貧 貧^貧 貧^貧

밤^밤 錦^錦 입^입 고^고 路^路 이^이 이^이

번^번 치^치 를^를 명^명 탕^탕 이^이 착^착 어^어 갈^갈 아^아

삶^삶 을^을 보^보 면^면 서^서 보^보 면^면 서^서

맹^맹 죽^죽 죽^죽 죽^죽 죽^죽 죽^죽 죽^죽 죽^죽 죽^죽 죽^죽

어^어 죽^죽 죽^죽 죽^죽 죽^죽 죽^죽 죽^죽 죽^죽 죽^죽 죽^죽

가^가 나^나 죽^죽 에^에 앤^앤 빨^빨 빨^빨 빨^빨 빨^빨 빨^빨

몰^몰 삼^삼 은^은 일^일 꿩^꿩 을^을 둑^둘 한^한 가^가

이^이 빨^빨 이^이 빨^빨 이^이 빨^빨 이^이 빨^빨 이^이 빨^빨

이^이 빨^빨 이^이 빨^빨 이^이 빨^빨 이^이 빨^빨 이^이 빨^빨

LYSS

讀書와人生

讀書는 文化社會의 人間生活에 있어서 精神의 資糧而言 莫的으로 量的으로 供給하
여 그生活 内容을 더욱 豐富케 하는 커다란 力量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讀書와 生活을 分離하여 考察하는 傾向이 있다. 生活은 意識이다. 知性이
는 人間生活은 이를수 없으며 知識은 讀書에서 얻는 것으로 智識과 番積은 知性
의 '문'을 더욱 밝혔다. 소리으로 讀書는 바로 人間의 知的 成長의 集團이며 讀
書를 하지 않으면 知的 不具有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讀書를 通하여 自己가 生活하지 않아 한 그著者만이 經驗한 生活을 알
수 있을 뿐더러 그 經驗을 再經驗할 能力を 갖게 되는 것이다. 한層 더 나아가서
서로운 知識을創造하며 또 같은 서경험을 自取할 수 있다. 舞高臥한 數年의
生活은 바로의 讀書로서 偿大計 作風을 通過하여 經驗하고 生活보다 舞袖值하며
其하로의 讀書서라도 意義 있는 数十部의 生活을 經驗할 수 있는 것이다. 人間은 知識
이 늘어 살수록 未知의 空隙을 더하고 發見되는 것인대 深見할 으로써 더욱 紗之計

~ 21 ~ 例 知識 即 生活에 韶한 意識이 離離하게 되며 여기에서 力道을 얻은 그
~ 知的 生活은 삶의 富裕를 增加시킨 것이다. 유타들의 生活은 衣食住 舒寧

이며 知識은 이 生活 事業에 있어서 가장 離離한 武器다. 그럼으로 우리는
生治事業이 武器로서 가장 効力이 “큰” 이 知識을 得取하려는 心志를 恒常
존재. 가진다. 그것이 그에 한가지 명령은 擃書를 하는데는 擃書
를 並抜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効力이 뛰어난 편에서 기쁨을 賽奪하는 것이다.
讀書의 特權을 누리고 천연천연은 몸짓하니 舊書를 辛苦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要批判의 으로 책을 來하여 講讀하는 것은 아무리 量的으로 複雑한 擃書를 해
도 欲望의 利得도 보지 못하고 過去人 稿이 탐되며 自己 人生觀을 고
통, 痛斥을 해석하는데까지 悪惡을 미치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보
물지기 自我를 書籍의 内容으로 복리 超越시키 著者의 俗과 思想을 批
判, 論味할 力量을 카밀야하며 著者은 恒常 그 機智과 感性을 高
尚한 趣味로 指導할 수 있어야 한다. 亂世가 並抜한 方式의 탈로써 走을 것이다.

問題는 知識를 求하는者 自身에 달려있어 热情은 같았고 必要한 知識이 있 는 것을 찾으면 반드시 舊識을 求하게 된 것이다며 道는 良書를

書

解한 것이다 사람에선 뉴나 自己의 志向의 力과 生若 條件이다

우리 읽으면 책이 있으면 손에 들면 몇자 理解가 잘되는 것이라고 묻 책이든지 理解는 갖추었는데 손에 넣을 만한 告若條件이 되침을 떨리거나 理解할 수 있는 限의 내용을 찾았을 때 손에 넣어서 한권으로 徵集하게 精讀하고 有作하여 하며 生若條件이 関係된다 한들도 最後限의 量은 極めて必要로 할 것 같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読書는 精神이 精糧食이 개별뿐이다 請書는 每日 朝夕으로 한두 時間씩이 원할 것 같아 가장 유행한 것 같다. 우리나라 뿐 삼함이 같고决心만 있다면 삼학이 자기가 한두 時間과 함께 알게 되거나 아니 한두 時間쯤은 모임을 時間을 빠져나온 것이다. 因此의 健康을 위하여 하루와 세끼에 食후에는 자주 수면하면 精神의 健康을 为하여 翡翠으로 한두 時間쯤은 当然이 諸書하여야 한 것이다.

~23~
답답한 우리에게 암울한 물질이 뿐만 아니라 精神의 資糧이
방언 人間으로서야 生存의 意識을 찾았던 것은 나아. 雖로 쌓은 藏
을 갖았고 여전히 위력이 커진 精神을 繼續하는 참 헌신은 그
은 每日 每度 時間의 空間도 読書하는 佔領에 須臾たり 読書를 重視
精神의 技取로 自身을 豐潤함으로서 家業과 困厄에 防止자 となり며
사람은 貴賤 存在가 많아 두렵다. 이경계를 넘으면 読書는 우리 人倫生活
의 重要한 한 부위이라기 보단도 總體적인 基礎의 本源을 疑心할 여유가
없다. 누릴 機緣을 대로 生活을 管轄하야 許한 한限 読書에 蒼進
하여 最大的 人倫의 利益에 보여야 할 것이다. (金)

金 自然스러운 動作은 모두
言

바른 나운 것 이라

(베버슨)

우리 학校 차량 이고 차보

編輯者로부리 우리學校의 차량甚便것을 譲託是 金
세금이라는 謂託是 뾰교 붓

을드니 차량서리가 남부 많아서 차량리를 차지못한 지경이다

첫째 차량하고 산을 것은 우리學校의 位置다. 우리學校는 政府學徒들의
愿望의 데요. 국민의 代表機關인 民衆院의 事務處에 차리잡고 있는 関

系 차량이 차량을 살고 있다

둘째로는 우리學校學生의 貧窮의 面에 있어서의 優劣性이다. 배우하면
七八一이간 數甚甚 競爭率을 해치고 當然 国費生으로 七十余名이 並般
위주에서 現在의 三千余名이 息懈와 努力를 친려 智、德、体를 部
面에 있어서 보면 뉴우에도 험어지지 않은 人間이 되었단 것입니다

萬若 萬若 大綱領이 된다면 本校學生及友들을 주거지로 本務委員
 및 政府委員으로 任命, 國家 民族에 이바지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가지야 할 職業觀念

歲月에 흐름에 따라 種類의 生存競爭을 뒤집어 驅逐하여만 가고 있다. 그들은
인구의 증加와 더불어 產業에서 오는 不振의 懸然의 危機이지만 무언 보다로
弱少 民族의 國家로써 不過의 正義로 한 때를 蒙蔽하며 過去에는 現
우리 落後社會에 있어서의 生存競爭이야말로 世上 本曾有의 記錄의 現象인것이
다. 이러한 受難속에 있는 우리 民族이라는 것을 遺憾으로 認識하고 국民이
라면 좀더 우리는 健全한 精神力과 才志力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함에도 不拘하고 神聖하고 尊敬을 떠아야 할 勤勞大眾에게서 우리 社會의 認識
이 널리도 鐘鈸을 참으로 国家 將來를 為하여 爲應된로 바쳐지지 않도록
오늘날 所謂 文化人층에 드는 人物를 흡사보자. 그들의 大部分은 极端히
이 洋常時局을 利用하고 血眼이 되어 갑우승 機会를 찾기에 余食이 땅에
一獲千金의 爲利에서 놀부처럼 친는 분들은 우리의 아직 살았을 엔진 두 눈을
흘리개만 헛뿐이다. 國家의 숨이라고 불어야 할 일들에게 보통 좋은 文化人이란

이름으로接待하여命名社 우리 친선의腐敗相을束手無策으로放棄만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삶을 빼야한다!! 우리는 서로운活路를 찾어 멀리야간다
두 팔을 벗고農場으로工場으로或은開拓되지않은自然을 찾아徙散을 거
급하는것만이 우리에게賦稅 모자하나의社務은國家復舊策에期可得之以
는 모자하나의 전문직이다 오늘날에 우라社會에는官尊民卑思想이 더욱
顯著한狀態에 있으며勤勞勞動者들이 대체社會的으로 爲尊한地位에 놓여야
할것인가?

우리 獄制에 半方年의 正變가 袋漏重疊하여 흐르는 동안 大國이과 自詡하
는中國이 滅滅연 威脅과 壓力로에서 절려진 乃大思想과 土壤에게 아첨하는
根性 乃 近四五年을 俗政治下의 옷깃 虛待와 弄偽聲에서 自主性을 잃고 살
았던 우리民衆이 乃와 作는 虚偽思想이 二十世紀思潮에서도 우리를 성화하고
있을것이다 이제 獄制思想로서 發展을 指向하는데는 무엇보다도 自立精神을 培
養하여 自立精神을 獄制에 奉獻하여야겠으며 이것을 実踐하기為해서는 非常한

우리의 覺悟가 必要하다고 볼다 우리는 庸俗의 傻氣을 엄연으로 의심것이 아니
라. 否行에 須行에 道行에 道行에 即 聰明才智를 有之은 當是 最大限으로 利用할 수 있
는 事務에 燭照하여 最大의 効果를 얻을 수 있노 職場을 選拔함으로서 挑撥競逐登
場의 自然을 开発 動服하는 廉勤力이 될것이며 나이가 周歲百年大壽의 健全
한 中興化 데치이다.

4289 3. 金言 金言
俞 正 根 告

口述. 開
(開心註意)



詩 俗人 李園

누린 길을 걸어 납니다.

터백이 사람들이 걸어야만 된다는

걸에 이은 길입니다.

누런 길에 진해오는 옛 발이 있습니다.

바탕이 누린 것,

흙을 내서 사는 사람.

터백이 사람들이 누런 흙 둘레에서

흙 목덜미를 잡아 살림을 대대로

흙 옛날에서 수레를 굴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흙에 이은 사람이 새롭습니다

보람있는 섬터를 지켜

오늘도 누런 아길을 걸어갑니다

貧에 처한 潛息草 우리 나라를 뜻하는 수호에게 헌책을 알 수 있는 환경을
가질 만은 無美이다 나중에 우리가 서술치 않으니 차관한답고 내생을 주는 것은
本校 特設 "스모고끼" 時間이다 李東一博士를 회장을 하며 常任名譽博士를
百爵獎典 光榮學生 教授室女使喚 피로리 고급賞受券署等 速記學
校署名 人名 名故 參席하여 스모고끼가 多數 채용해 用畢의ogn 한다. 그러나
다. 生生任들의 想象이 있을 때에는 한도 疲勞解消 時間을 利用한다.
并이란 것이다 萬一 諸君가 왜 長寒을 헤고 短寒을 드친 일은 나고 한디면

라. 、 自作가 가장 이길래 봄이 미 고塞 狹窄이란 著적이 많기 때문인 것이다
장을 단정하면 脣이 넓다 細面固保로써 이것을 풀어내게 됨을 著者
는 感으로 生覺하여 速記의 门을 나선는 만일에 있거니와 추후에도
在學時와変わ 없는 友情이 珍重되기를 學友들에付託하며 誓을

놓는다

(算者こそ 学生會之長)

하다

一齋

扶助를 목적으로 한다.

本校의 委員會와 植樹會를 주관한다.

二禁煙
四男女性
五男女性
六茶果
七青社
八社團
九存在

扶助는 内衛生을 위하여 禁煙會와 植樹會를 주관한다.
四男女性은 伸張을 위하여 春秋集會를 한다.
五男女性은 伸張을 위하여 女分委員會를 한다.
六茶果는 伸張을 위하여 速記會를 한다.
七青社는 伸張을 위하여 速記會를 한다.
八社團는 伸張을 위하여 速記會를 한다.
九存在는 伸張을 위하여 速記會를 한다.

11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12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13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14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15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16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17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18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19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20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21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22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11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12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13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14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15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16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17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18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19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20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21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22 本校의 諸種의 常典이다.

그리고 似似이 管轄하는 國內 政治動向에 대하여 소식이나마 德多주 論述
는 것이다. 예전부터 呂生社들의 國政 監督의 行為를 들었으나 讀寫全

詩 俗 人 壹 圖

누런 길을 걸어 갑니다

터백이 사람들이 걸어야만 된다는

걸에 이은 걸입니다

누런 길에 친해오는 옛 밭이 있습니다

바탕이 누런 것

흙을 내저 사는 사람

터백이 사람들이 누런 흙 둘레에서

흙 목덜미를 잡아 살림을 대대로

흙 옛날에서 수레를 굴렸습니다

혔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흙에 이은 사람이 새롭습니다

보람있는 섬터를 지켜

오늘도 누런 이길을 걸어갑니다

設言門

先 生 宿 宿 生 生

1

速記를 万一 그만 두신다면?

2

速便土로 대가자 출거정을 때와

3

速記를 通訳 申면쓰 有無?

4

卒成生에게 한 번은 떠듬?

5

四期生에 대한 可棄 如何?

抱 勇

1

二年中 가장 허기었을 때때

2

가장 피로되었을 때때

3

結婚規

4

어누구와 어떻게

5

先生任評

6

金副

7

漢漂校

8

基改

9

先生先生

金 錄 基 卷

1

哲半回 超君勸作之 萬葉抄

坐坐坐而 陳以真境以遺

이 記 · · · 級別 内外 그

外郎에 낙으로서 그 藤原

을 為한 나의 繁華이 仁加하니

자자 舊을까?

已 7 遠 航 船 航 하니 及 年 1

四 8 今 年 八 月 四 日 鎌 海 대

開 案 舟 中 元 首 會 擇에 隱 寄

計 가 故 하니 舟首 은 舟 舶 之

行 舟 亦 無 手 때가 竹 筒 之 筆

此

上 역사 을 챙아 時代에 某 詩人 의
詩 刻 作 次에 起한 謂 漢 速 記 이
獨 異 異 記 速 記 有 故 事

5 不 故 畫 程 之 研 練 琢 磨 한 四 舟 皆 之 著 之

他 舟 生 舟 舟 有 著 之 特 徵 이 있다

4 訓 読 의 五 戒

5 訓 読 之 読 読 之 前 五 戒 皆 之 不

5 訓 読 之 読 読 之 前 五 戒 皆 之 不

5 訓 読 之 読 読 之 前 五 戒 皆 之 不

5 訓 読 之 読 読 之 前 五 戒 皆 之 不

5 訓 読 之 読 読 之 前 五 戒 皆 之 不

鄭源道龜注

學生

1 疾而嘔吐 技算하여 嘔吐의書

2 7 誓辭이 悅辭를 許諾를 誓辭이

3 有 ?

4 與外處生行 並其處의 運

5 事가 되지 않고 善無深底의

6 訓이 되도록 가

3 + 30 前行

7 入孝하여나니
孝美前直前 故其의 苦惻

1 記者 李鍾均

2 入孝하여나니
孝美前直前 故其의 苦惻

3 有 ?

4 與外處生行 並其處의 運

5 事가 되지 않고 善無深底의

6 訓이 되도록 가

7 入孝하여나니
孝美前直前 故其의 苦惻

1 記者 李鍾均

2 入孝하여나니
孝美前直前 故其의 苦惻

3 有 ?

4 與外處生行 並其處의 運

5 事가 되지 않고 善無深底의

6 訓이 되도록 가

7 入孝하여나니
孝美前直前 故其의 苦惻

8 事가 되지 않고 善無深底의

9 事가 되지 않고 善無深底의

崔斐重

1 我口最大의 造公社를 設立 豈此나니

2 그녀가 現穎이 낙보軒 優秀敦厚하며
「速記를 더운 속에 배울 때」

3 그녀가 八才 聰
「그때보다서 적당한 향을 으로」

3 그녀가 八才 聰
「그때보다서 적당한 향을 으로」

4 登山 旅行

5 登山 旅行
「나를 어가고 조용히 찾아주↑」

金 繢 基

1 一數 速記士

2 그녀가 速記速이 進之前進時
「速記速이 進之不進時」

3 그녀가 國賓한 女性
「道合하니 時機
慈愛하니 自身 故音高」

4 講와 登山

5 그녀가 儒教學
「儒教的」

姜 先珍

1 地球를 살펴 看여 登高 해준다면 足高
己가 죽었다니 가는 朝色(青色) 杏色 하니 무지경에 끌려온다
서 쓰는 記述 記述 추후 反文 못한 때

3 그녀가 한사가 바빠요
「꽃피는 가는 十九才가 좋을까」

4 新聞의 만화보기

5 그녀가 遊樂하니 電話에 푸착 하니 막을

6 그녀가 所 노기기 一弄
「전보하니 빛을 띠는 金之金은 두꺼비라고 나를 봐
내마음이 멀리 실신시킨다니 푸착하는」

1 金

1 金
「일을 드나 南之 것들로 玉」

2. 1. 韩文
2. 2. 韩文
3. 3. 韩文

4. 1. 韩文

5. 1. 韩文
6. 2. 韩文
7. 3. 韩文
8. 4. 韩文
9. 5. 韩文

2. 1. 金 午	1. 1. 先 贞	2. 1. 申 未	3. 1. 短 長	4. 1. 酉 未	5. 1. 肥 瘦
1. 1. 先 贞	2. 1. 申 未	3. 1. 短 长	4. 1. 酉 未	5. 1. 肥 瘦	1. 1. 先 贞
1. 1. 先 贞	2. 1. 申 未	3. 1. 短 长	4. 1. 酉 未	5. 1. 肥 瘦	1. 1. 先 贞
1. 1. 先 贞	2. 1. 申 未	3. 1. 短 长	4. 1. 酉 未	5. 1. 肥 瘦	1. 1. 先 贞
1. 1. 先 贞	2. 1. 申 未	3. 1. 短 长	4. 1. 酉 未	5. 1. 肥 瘦	1. 1. 先 贞

3. 1. 李 1. 本 本	2. 1. 九 代	3. 1. 鄭 禮	4. 1. 曹 真
1. 1. 本 本	2. 1. 九 代	3. 1. 鄭 禮	4. 1. 曹 真
1. 1. 本 本	2. 1. 九 代	3. 1. 鄭 禮	4. 1. 曹 真
1. 1. 本 本	2. 1. 九 代	3. 1. 鄭 禮	4. 1. 曹 真
1. 1. 本 本	2. 1. 九 代	3. 1. 鄭 禮	4. 1. 曹 真

- 38
- | | |
|--|--|
| <p>2. 1. 爪</p> <p>1. 長官의 詞整官士代契必 힘兼歟 習者
2. 諸山城의 道會는 나기 꿈은 대구에 訓
3. 諸有基興</p> | <p>2. 1. 爪</p> <p>1. 諸有基興
2. 諸山城의 道會는 나기 꿈은 대구에 訓
3. 長官의 詞整官士代契必 힘兼歟 習者</p> |
|--|--|
-
- | | |
|--|--|
| <p>3. 2.1. 爪</p> <p>1. 結速 풀이 급이 必要性을 때가 더 많았을 때
2. 婚婚 풀이 급이 必要性을 때가 더 많았을 때
3. 小學 千字文이 다도 敎養 가수를 라면</p> | <p>3. 2.1. 爪</p> <p>1. 結速 풀이 급이 必要性을 때가 더 많았을 때
2. 婚婚 풀이 급이 必要性을 때가 더 많았을 때
3. 小學 千字文이 다도 敎養 가수를 라면</p> |
|--|--|
-
- | | |
|--|--|
| <p>5. 4. 爪</p> <p>1. 諸有基興
2. 諸山城의 道會는 나기 꿈은 대구에 訓
3. 諸有基興</p> | <p>5. 4. 爪</p> <p>1. 諸有基興
2. 諸山城의 道會는 나기 꿈은 대구에 訓
3. 諸有基興</p> |
|--|--|
-
- | | |
|--|--|
| <p>5. 4. 爪</p> <p>1. 自由登學
2. 自由登學
3. 自由登學</p> | <p>5. 4. 爪</p> <p>1. 自由登學
2. 自由登學
3. 自由登學</p> |
|--|--|
-
- | | |
|--|--|
| <p>3. 2.1. 爪</p> <p>1. 訓解
2. 訓解
3. 訓解</p> | <p>3. 2.1. 爪</p> <p>1. 訓解
2. 訓解
3. 訓解</p> |
|--|--|
-
- | | |
|--|--|
| <p>5. 4. 爪</p> <p>1. 散集
2. 音樂
3. 錄賞</p> | <p>5. 4. 爪</p> <p>1. 散集
2. 音樂
3. 錄賞</p> |
|--|--|

公平無私 鄭重其事
十九歲의 印象을 名나
离異學校 때의 刻苦主食을 行하게 한다

己上 長童
超羣的

1. **俞正根**
美作家
其筆下速記本子를 읽고 下學할 때의 氣分
生賞能必學을 느끼기 많았다
讀書 散步
모둔한 학業에 부드러운 教授
말의 表現이 느려서 素學에 삽입은 豪
꽃송

2. **徐平吉**
信과 學에서 끝까지 苦
論述를 찾지? 헌법부 雖生에 대인
것이지요
3. **長童**
信 21
論述를 찾지? 이제 막 나빠야 아니겠소
正史 卷 헌법의 極化 단면
讀書 長任
第一回惟 이였으라며 月讀도 甚^시 論
經驗을 때만 親悟 됐다

3. **樊龍**
世界大學生
1. 1. 1. 1. 1.
上職 入學
自由 而始終
選結婚
運動
長性才 ?
T.Y.P.e.

4. **黃圭增**
美作家
召集人狀을 받자
1. 1. 1.
年佑 内生辰日
公母 밤사이에 부친한 女性
仲所者 聚合

54

1. 諸子曰「命禮儀部長舍士
五子曰「命禮儀部長舍士

第士代民故黃士侯那補出
已₂₃ 날로₄ 끝에₅ 치니₆ 於是乎不
東津₂ 通信₃ 이₄ 信言₅ UP₆ 車舉
孤兒₂ 無父₃ 子₄ 諸₅ 亂₆ 雜₇

5.1.2.1 全林
1. 光華₂ 照₃ 細相₄
2.1.2.1 有風₂ 當₃ 當₄ 船₅ 俗₆ 俗₇
1. 當₂ 海₃ 河₄ 俗₅ 俗₆ 俗₇

5.4.2.1 孤獨₂ 畏₃ 畏₄ 畏₅ 畏₆ 畏₇
1. 惟₂ 畏₃ 畏₄ 畏₅ 畏₆ 畏₇
2. 惟₂ 畏₃ 畏₄ 畏₅ 畏₆ 畏₇

5.1.2.1 全珠
1. 命₂ 明₃ 明₄ 明₅ 明₆ 明₇
2. 珠₂ 珠₃ 珠₄ 珠₅ 珠₆ 珠₇
3. 珠₂ 珠₃ 珠₄ 珠₅ 珠₆ 珠₇
4. 珠₂ 珠₃ 珠₄ 珠₅ 珠₆ 珠₇
5. 珠₂ 珠₃ 珠₄ 珠₅ 珠₆ 珠₇
6. 珠₂ 珠₃ 珠₄ 珠₅ 珠₆ 珠₇
7. 珠₂ 珠₃ 珠₄ 珠₅ 珠₆ 珠₇

3.2.1 我尹
1. 在國₂ 在國₃ 在國₄ 在國₅ 在國₆ 在國₇
2. 在國₂ 在國₃ 在國₄ 在國₅ 在國₆ 在國₇
3. 在國₂ 在國₃ 在國₄ 在國₅ 在國₆ 在國₇
4. 在國₂ 在國₃ 在國₄ 在國₅ 在國₆ 在國₇
5. 在國₂ 在國₃ 在國₄ 在國₅ 在國₆ 在國₇
6. 在國₂ 在國₃ 在國₄ 在國₅ 在國₆ 在國₇
7. 在國₂ 在國₃ 在國₄ 在國₅ 在國₆ 在國₇

5.4.2.1 翰弘男
1. 翰₂ 弘₃ 弘₄ 弘₅ 弘₆ 弘₇
2. 翰₂ 弘₃ 弘₄ 弘₅ 弘₆ 弘₇
3. 翰₂ 弘₃ 弘₄ 弘₅ 弘₆ 弘₇
4. 翰₂ 弘₃ 弘₄ 弘₅ 弘₆ 弘₇
5. 翰₂ 弘₃ 弘₄ 弘₅ 弘₆ 弘₇
6. 翰₂ 弘₃ 弘₄ 弘₅ 弘₆ 弘₇
7. 翰₂ 弘₃ 弘₄ 弘₅ 弘₆ 弘₇

4. 房₂ 宅₃ 宅₄ 宅₅ 宅₆ 宅₇
5. 房₂ 宅₃ 宅₄ 宅₅ 宅₆ 宅₇
6. 房₂ 宅₃ 宅₄ 宅₅ 宅₆ 宅₇
7. 房₂ 宅₃ 宅₄ 宅₅ 宅₆ 宅₇
8. 房₂ 宅₃ 宅₄ 宅₅ 宅₆ 宅₇
9. 房₂ 宅₃ 宅₄ 宅₅ 宅₆ 宅₇

~40~

1 朴
오자
勝

적월
速告

되는데로
가되있는데로

54
기념
建佐
新
活
和
廉
格
親
舊
舊
父
子
父
母
人
人
人
人

干先
親
父
人

54
기념
建佐
新
活
和
廉
格
親
舊
舊
父
子
父
母
人
人
人
人

고
1
入
學

基
弘
基
基

54
기념
建佐
新
活
和
廉
格
親
舊
舊
父
子
父
母
人
人
人
人

高
先
親
父
人
人
人
人

54
기념
建佐
新
活
和
廉
格
親
舊
舊
父
子
父
母
人
人
人
人

高
先
親
父
人
人
人
人

外

三

~。~。~。~。~。~。~

11 王不琢不成器
人不學不知道

(坐設向望)

543
高
先
親
父
人
人
人
人

高
先
親
父
人
人
人
人

高
先
親
父
人
人
人
人

卒業斷想

~41~
처음에는 本八十余名이었는데 本校가 40명 정도 몇몇 학생들은 퇴학하는 경우에는 30명이니 榮譽의

높았던 이야기로 這是努力과 忍耐의 結晶이라 ! 샅샅슬립지만 成績에는 努力과 忍耐한
必要 不可欠한 存在로군 ! 그제 옛 사람들이 努力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학원을 나선는 우리에게 春秋의 野遊會 感受 其他 親睦으로 두터워진 우리의 舊
을 永遠도록 变形할일 !! 사람이라 情과 信이 무엇보다도 重要한 일 !!

그래서 옛부터 賤友有信 이란 말이 있은것이 많았니까 !!

사람은 언젠가 배워야 할일 !! 그래서 우리 초교는 職場과 싸우며 穎
을 하지 않았습니까 ?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 高貴한 精神이라고 자랑하고
산았든 일입니다 萬能은 『必修』이라 우리는 人格陶冶로써 ! 実力으로
씨 !! 바르게 !! 모든 일에 临해야 되겠습니다. (끝)

(隨筆) 新春雜想

S. H. K.

兩水警轄이 지난번 大奇과 풀린다는데 때아니 霜雪로 東部地方엔 数

隻 人命의 艱苦와 船舶의 破損 船屋의 破壞가 異常의 차상을 비쳐내며

습부의 鮮春가 晚은 삼봉 보령도 하늘만 珊瑚礁가 나온는 빙 봄비 치우는
是 모락모락기 주룩주룩하고 일마다 일마다 물결을 大地는 雪賊이 풀리면서 파

듯이 난 새싹이 돌아날것이고 雪崩 杖木에도 새싹이 돌아나서 꽂이
피웠지! 아마도 봄은 왕과보다 아니 뿐 아니라 道主로 묘른다. 사람을 道始

하여 萬物이 鶴首童身하는 이 봄이란 만 삼봉에는 이 봄을 始려하는 族

属이었으며 나는 族屬中의 族屬이다

말들은 봄비가 삽은것도 霜寒이요 바람에 날리는 먼지, 羅服가 날은하게
는이 진짜로 늘어진은 흐리털뿐한 날씨가 삽은것을 霜寒이나 하다 내가 가
장 싫어하는 것은 내 身體에는 치도 못된다 봄이 오면 羅服은 삼봉의 봄은
그후 凡相知 부모님으로고 산에도 들었고 땅으로 활하게 피언 꽃들은

눈물 물들리고 뜯는 날씬은 견지 않으면 못견디게 하며 甚之於는 잔디밭
속자 우리의 웅덩이를 물복숭게 되니 사람들은 둘로 땅으로 헤메워 된다
가자 / 의 화려한 腹들이 걸을 힘들고 뛰는 것은 능숙이 걸로 절뿐이
는 절은 이대로 살을 지어 써볼을 즐기리라 이봄에 화려한 群像들 사
로 쭉쭉 부리진 새처럼 나깨를 쳐 늙도록하고 胸膛이 넉넉령 거친 것
처럼 몇 없이 친량습의 것은 없다 아쳤나다 / 바로 아쳤다 나의 봄을 살
어가는 게 아랫 것이다 밖에 나서면 漢然한 물분이 뿌리치고 아니고는 것 만
이 褪跡에 걸리며 그렁하고 序안에 앉자 있는 더욱 천연주인은 빙이다

그래서 나는 봄이 오기 전에 봄이 가기를 기다렸지 땅을 땅을 遍地이
다 그러나 봄은 오고야 말리라 그렇다면 입을 밟겨 뺏아 둘은 마음의
리를 닦아놓아야지 !

金言

사람인 것으로 謂足하라

| 蓮心 |

隨筆

비 오는 날

孫

金

順

여름

인

비 오는 날

는 좋아한다

줄기 찾게

내리 퍼붓는

시원한

맛이 있어

줄리니와 달뚱거리의 나루를 제초하면서 창호록처럼 구슬피 머리는 늦은
가을비는 더욱 좋다 도시에서 나서 도시에서 찬한 나인자락 비오는 날을 좋아
한다는 것은 농부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거리에 벗지가 많아서 말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비오는 날이면 다른 대접한 날에서 보단도 마음이
가려워 나의 밤을 벗들게된다 또한 때잔을 속득 드린 진분도 있을
까닭이다 나의 추한 ¹이든 이든 ¹아름다운 면 ¹이든 나만의 세계를 찾어 내 마음
을 속드려 드려다 본 수상다는 것은 이렇게 변화한 도시에선 옛날 칭찬
시간이 많았던 것이다 뺨이 짚고 식탁이 사놓 풀려진는 물집 비가 올 때 참
으로 볼히 벌리보이는 날산 중후에는 으레히 암개가 까고 나의 시야에는
한종 좁아지며 보인다 꽃이 유리창에 부딪친는 수천만개의 ¹빛 밤을 헤
아리며 나는 살갗이 땀물의 뭍을 벗었다 천부한 동령어진 꿈도 않아요

부나 진나친 환을 도망쳤다 내 차관이 또렷이 솟아오른다 알록한 꿈틀흔
밖개 터힌 놀든 넘어른 결코 살리지 않으리라 추운 놓치지 말
아름답게 만 늘려놓고 날을 만 끝으로 주어도 풋은 허 나방을 속에서 날개
를 펴고 떠나려하지 않는다 이리 한 날이면 비록 죽라한 내 삼간방 억지
반 ^나 벌은 내방을 낚워 침침 지하고 살려진다 그정진만 푸라라스며
할루〈떨어져가는 늪은 가을 흐드려 물듯이 버린는 벌을 맞길을 좋아
한다 말라불은 풀꽃이 암상한 낙가지 꾀별은 천야에 희호리 밤
이 날뛸을 들고 휘황히 날라나는 꽃 석리로 쓰다느것도 좋지만 솔
은 암자씨의 조심스러운 밤길을 잡아 죽우니 하마는 벌을 맞으면서
낙봉을 밟고 친는걸로 참을 청간은 순간이다 삶은 벼묘상에 잡기어
思索의 흐름이 끊임없이 통안 밖에 밤 ^한은 蕃葉의 離落을 낸 봄
코 살각한다 만연 맑은 봄에 싹 틔어 가을이면 저야한 숙불을 친것
이다 꽈드득이 맑은 자기가 송아서 대해나온것도 아니다 그리기에 봄을

은 칠이되면 有幾程在오 時間在在도 虛靈가 것들나 이 現在在을 빼어나

自身에 뚫어가는 것이다. 그대사 밀흔은 나영이 되어 한번씩 외출하 털여줘

띠없이 本夫의 自由 本으로 뚫어가는길을 가고 있는것이다. 本에서 本을 철쳐

다자 本로 뚫어가는것이니 本의 죽임이 나영이라면 나영은 다름아닌 이

조종의 超克이 아닐까한다. 뺨에 밟히는 날렵의 鼓動을 들을때마다 哀愁와

虛靈만이 유품내 마음의 緣故를 차진하고 있다. 翠翠에서의 나의 짜른

生涯를 나영의 简命에다 비화된다. 온는부 저 뼈만은 뚜라다나스에는 또

다시 새싹이 뚫어나오겠지만 그것은 이미 뺨에 밟히는 뚜같은 简命의

나를은 알았것이다.

우연히 나는 지난해 단한번 뺨과 함께 1955년도의 최후의 갈을리를

맡고면서 레인瓢을 산을 경진체 우산도 없이 충돌로를 걸어온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의 대화가 무언이었는지는 기억에 흐리나 그 뺨은 "이미가 운해에 바

습하는 버금지도 몰라 랍 예언하였고 그후 얼마 않았더 내가 뜬 종아리를

힌눈내려 그 뺨의 예언이 뺨에 것을 은 記憶하게된다.

(을)

卒業을

당하여 나의 지난 날을回想起하면서

崔夢重

제 삼십여 년 까는 것은 아니지만, 1년 이란 膝齋이 盡 珍重을 많았습니다.
나는 15세에 내가 우리 速記學校를 들어온지 꼭 열년이 되는 일래에
나는 빨리 초급을 하면서 在舊當鋪를 回憶하니 참호 當鋪를 드는 바가 있었습
니다. 速記를 배우는 둘은 기본으로 솔직히 내가 가장 困難했던 일을
풀리게 불리 합니다. 存學時, 여러 老友들에게서 “간밤 일련 貨物을 빌은
밀이 있었답니다.” “어제 밤 빌려 쓰고 期許했습니다.” 이것은
상友들 누구나 다 찾았던 것은 신이었습니다. 이런 貨物을 받고 점점
替換화를 보면서 편도 두번이나 밟았습니다. 그때 次第로 청탁도 많았
죠. 將次별을 前輩에게도 聰가 되었하여 나의 駕驅을 살피서 빌을 쓸 것입니다.
우리가 速記를 빨리 練習하기가 晚年 背書를 불리 봤고 생각됩니다.
그쳤다가 몇년 만에 나니 목도 떠나 같은 속에 살고 実踐한 일을 찾을

○
여기 전耐의 韓方의 네로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耐의
努力에는 訓은 사용과 막길은 신증과 소美践은 어려워졌습니다. 전耐에
舊居가 되었고 여기는 越華殿이 딸린 저택이 準佛 菩提院을 뛰어한
번 들품이 아련하여 남남보다 못한 대의 그 초초하고 急促한 말론 말들은
목적이 깊고 磬학에 걸입니다. 이런 艱難을 겪으면서 朝후를 瞽瞽하기
始하였고 벌을 받을 것 같아 束時間은 切諭의 한 遷學 뿐 雷車內에
까지 破頭하여 失手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文李 整頓을 하기 위하여
죽 쟁기 菩提及 真如院을 建立하여 朱雀院은 切諭 先輩 甚
之於 常友들에게 까마를 빼워서 그들을 죄기 속에 고쳤습니다. 路外
의 풀이 하여 의문으로 써보면서 한 후 한석 痘暎했던 일은 그다 섭진는 데
었습니다. 그 행운에 몇몇 내공은 痘暎의 治制를 갖추었고 간호도
하였습니다. 이롭게는 두 번의 험난한 徒跋한 단을 넘은 바히현이 듬지
않았으며 몇 번이나 낙하고 쓰든 차는 보통에 놓았고 날로 놓두가 있었습니다.

甘다 나는 이침에 삼교 유품을 향하여는 精神을 集中시켰
이亦是 다른것이 言語를 만 達解 精神統이 무언하고 懿尊
한자 이更更甘다 余談을 친 文字나다는 말이 나왔다 말이자 慶恩
師 張莘年가 跳躍하여 多文練習端 철학을 써는 李子 박자 訓
로 言어유기 跳躍 하 跳躍은 소리 一一 일언半을 낸다 才能
生長되 努力을 하였고 跳躍을 딴은 보람과 恩師 張莘年이 指導
允准 考 德高 내세운 培養은 恩師의 指導에 머리진것같은
感覺 禁慙하기 때문이다

坐 내기 遠記坐題에 临其境 遠去를 同想其境에 세분은 자나마
健朗다 學友諸兄들이 健手를 祝福하면서 學友 途中 国家의 부
품에 志於 柳若鉉 姜信虎 申東澈 張彰秀 金謹泰 諱
兄弟의 武運長久를 빌면서 祝其 勝利를 높였다 四九三日擇夜

書簡文

이 날을 어머님께 하회나이다

K. H. Hong

기도 十年이면 变幻多端은데 春風秋雨 十箇星霜을
生變으로 累積한 바는 친은 어미님께 시는 憑懷의 韓 詞를 우러로
业묘로 自由로 허 날과가는 기러기에게 이 花月의 芳流을 어미님께 依
하여 달까요 付託하고 뭔들 들었나이다 밤 조차 남친 거센 繁華 바
깥은 눈파 깊이 날려 눈보라가 빨oon 어인듯이 춤사용고 얇은 눈을
에서 薄靄은 하지 냉리어 어진 시진 故鄉 쌍眸은 복물로 세하며 더욱
어머님 쌍眸을 아나게하는 표보도 밖자막 薄靄은 나리는 鄉愁의 날이
옵니다. 어머니! 땀을 틀고 춤을 옷가려하니 물은물을 어령께 써야
옹울지 머리가 猛暑지고 같은이 티침증이 피름나이다 척가 故鄉을
떠났지가 바로 어제같으나 달이 가고 헛 멀번 밖여 어언 십개정
상의 꿈결같이 흘러버렸나이다 来去마나 보라니 일중계 繁愁故鄉에

천 서운 生惱속에서도 おおきい 痛苦, 南北이統一된 남한을 舊得하고 있
으나 그것도 남한 虚榮이 空想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헤하여 목로 향료 페풀 들어 おおきな 둑에 옮기며
물방아 감자에 손들고 어머님의 옆풀을 한 칸 틔워서 옆풀
泥漿을 되살리려하니 뛰는 이감자에 고운은 참봉 참봉 빠라지고
짚모레 눈불은 구술관도 냄새를 무릎을 쳐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 둑으로 위안 끌어며 목을 물어야 할며 어머니께 진 술
을 뇌까려 어머니께 나와야 하겠단이까요! 어머니! 어머니같
불러온 순순 어머니께 그려본 이 순순 어머니의 애지치 사랑뿐
그 꿈같은 옛풀을 찾았는 おおき한 이 순순! 저의 마음은 날마다
앞잡고 눈물을 털기만!! 꽃장을 놓아인듯 소송의 험담을 놓아
나마다! 어머니! おおき한 무었을 학자나이까? 냄새로 무로한
눈물의 학장원에서 유풉 천대와 꿈성을 겪어세사나이까? 썼성이

드고 아지랑이 친는 봄이올해 마다 벼국서 속히 드리간며 업의 밸 양쪽
불리밭에서 푸른한 麗나리를 불마다 씨워았나까 이 전통이 높
운 열름이 유품면 산발도 무집한 실을에 가서 배를 풀라 베시고 윤
동성 등에 협호심교 널린 밀장을 무집개 씨워가며 빙. 괴왕에서 밤왕
하나이까? 그전차량을 시면 구슬을 말을 흘려가며 벽 빠진풀로 희
자수에 못이거 치워 괴왕에 누시여 무진차 무흔 차를 원만하지니 미작.
멀미 빛이 이 구슬을 한풀이 겨친자나이까? 어어답! 봄영우답고
꽃지나이까? 어어답! 희? 봄을이 많지 낭요 비 어답!
펜이 이에 앞을에 침대 모르는 물통과 원통하고 터져나오는 흥이복
반혀 물풀이 암울 가려 더 펜이 옮기거지 않나와 어답! 그러나
지 냉~ 한편 몽몽옹 유어진 꼬목사으로 육畜牧业 풋이 병풍이 積
장한위 : 축단 꽃같은 아홉 단하여 천연봉을 치나 이를 몰
각자 <이 죽과 표적을 어르면서 화려하게 벼려다보는 능라> 담과

별으로 慢히 흐르는 大同江 침구른 물줄기에는 無心히 오락 가락하는
배기도 無心타 求景하던 歲月도 있 암요 洞里도 아름다워 鮑숙아꽃 살구꽃
이 華蔵된 果樹園으로 저를 여수록을 잡으시고 하나 둘씩 부엿을 가리키며 가지
사이로 나무사이로 봄을 즐기고 온갖 세월을 즐다하게 즐기었지만! 어머
니! 지금은! 열파나 악성이 늑무하며 세월이 변천무쌍하나이까? 어머니
! 저는 어젯밤 꿈을 꾸었나이다 어머니와 손목을 나란히 잡고 아장거리
는 귀여운 동생을 앞세우고 어리광부려가며 웃음을 담뿍 담으신 어머님의
明朗한 얼굴이 친숙이 험복선에 사로잡혀 어디로 가 가면서 부엿이라고 쓰
다듬어 주시면서 청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깨어버렸나이다.

어머님! 몇今は 遷註學校를 무죄하게 되었나이다 어머님께서 저의 雜
을 축하하시느라고 꿈나라에서 서둘러 막나주신 것으로 恩惠되나이다 어머님!
꿈 속에서도 저를 둘보시고 샘각한심 어머님! 그리고 앞길을 가르쳐
어머님! 꿈은 침꿈도 행복하나이다 어머님의 죽복하는 강운데 미추었을

(隨筆)

어느 봄 날

R 生 記

（隨筆）
에 따라 편성에 약간은 변화는 街路樹의 불가가 올라온 불리
을 때마다 그을 때마다 봄과 밤리를 걸고 나는 나에게는 봄의 계절과 함께
계절과 함께 산 속의 불이 빛나는 둘째와 활동은 自由를 흐리보아도 빛지 못할
열기다. 变遷無常 大自然의 繁榮과 소멸에 따라 落葉은 季節의 道窮인 遷
부에 隨緣한대로 自由自在 自然法則에 太極하여 義理를 빛어 낸 범례
이 爾로 本身이 나의 말씀이다. 仁 이 增理에 대하여 이 모든 말은 산과 물과
의 사물과 情狀와 意思를 見見하고 認識하는 論理로 即
는 없었을 것이다.

（隨筆）
間繕之善의 金錢과 電算機의 같은 것과 같은 것을 예전하게 염두해온 것이라
그것의 밖에 떠오른 時期를 삼아 畫畫을 풀어 차세대의 畫家로 되어
간다는 杜郎 心胸과 花香과 같은 것은 杜郎의 自身 속에 落地 심려가 많아 흔히 많다
感情의 轉化가 천천히 흐르는 것이다. 但凡人 路의 내심과 人情 같다. 電算機 與常

右

喜怒哀樂 惡善美醜 一 華을 입에 벌라갈고 莫然하니 身이 擬物 重慶
반란을 生費하고 爲도 積蓄을 넣어가 跳動한 青面靤 月자 같은 물물의 葵
비 험련 容態의 信이 雖 아득한 離隔이 雖 無外의 離隔이 肥
는 胸부의 살이 肉을 感이 深은 首肯沾潤은 손을 뻐기야 頗교 볼만한
포근한 선량한 美의 意志를 품어가 程定하여 固直을 慎重하여 그 素
가 품을 誓言한 素자

그 품을 봄을 憶美其君과 仁愛의 봄의 품으로 置고 甚도 莫非이 考를 밤길에
좋다. 조성히 찰든 懈然가 속삭거렸고 삶을 먹는다. 달이 跳動한 땅단치 自然의
神機의 한때 雄志를 걸려야만 되겠다. 이런 素質을 높여서 善한
밤길을 걸고 있다. 암개나리 숲속에서 봄의 香蕙을 感触하면서 소용한 밤
길을 默々히 걸고 있다.

（尾）

그대는 祖國을 爲하며 무疆을 하명하며 무疆을 當할인가 ?

左

日記抄 李東一

四
月
三
日

수신없이 之未足도 焦 例 内單의 次 해 휴를 遊게 되었다. 望 余柳는
간구의 "품원"이 많았지만, 道院 뭇연을 치우치우 차 냉이 異然하마하
나 俗한 사람이 속하고 각본 말이 痞辱해가 솔직히 막수에 밝혀진다.
이젠 선해의 "품원"과 차 차가 많아졌다. 且 단친은 말로 朝朝의 삶을 緊持
할 수를 하다못해, 이것이 新年의 生活 緊持 也 也

1月3日

��부린 克己의 舒暢을 해야 되겠다. 저도 나自身을 改善하는 데에 협력하겠다.
이제 나는 나自身을 韻覺하는 삶이 되야 한다. 암로 韵이 貧乏한 借연이다

1月6日

을 흥 韵을 끌어 韵 韵을 끌어온다. 韵 韵을 끌어온다. 빛
들이 모래밭에 한참에 놀아 놓고 참을 落落한가 落落한가 놀고 놀고
자 韵과 音樂과 韵을 활활 브리다. 살을 맑은 숲 빛과 빛과

한 가지에 보여 활을 풀었지 들이 時而 풀을 無意味 無価値
한 명이 떨어져 있었지 우리가 有情이 허친 않고 君處에 나갔지 나갔고 설이 끝고 설이 끝고 멀리 주연
무길을 自身에 뛰어온 큰 살이 떨어졌다.

1月8日
증거 事物이 世을 차해에 있지는 침차해하고 또한 대량해해야겠다. 수천명을
버리자 체면을 쟁자지 말자. 수천명의 전투가 나니 生活力에 멀리나 죽장에
흘러왔는 듯이.

2月1日
고 1月23日
자신의 良心을 속았고 상한을 둘지 이것이 이렇게 필로 줄운 를 했자. 雖
자신을 날카로 槍에 놓는 槍을 풀고 하여 친한 同志나 나는 이 쏘 비련 槍
을 擧 槍하는 보다 즐거 참 당 인 것이 되었지.

내일 朝 일 차 출입 시험이 있다. 5가 來 訪 했다. 속기를 했는데는 热과 誠을
다하여 初志를 貫徹하고 열의 해주었다. 5의 계약이 ooth이 흘도록 고마

했다 차기 전역 수령과 상.

월화 每日身의修練과 實學을 培養하자 그만이 積善을 하려 唯獨其類
자 與器이나 물질물만은 막장의 비명이다 而이 慢學을 直觀하여 令靜氣 莊列하여
自身充美에 力해야겠다

2月29日

어제 約束에 依한 唐洞 12리를 訪問했다 며칠마다 郡邑의 翻譯을 翻譯하고 있다
鮮素의 抱朴子 理想華에 遷했 長時間 意思의 文稿이 있었다 흥미를 떠나 높아야
시 落魄한 徒然 志向을 記하려 했던 것이 果然 내周圍에는 열마디 펼는지!

3月5日

오늘도 大過없이 하루의 10교를 마쳤다 날마다 물에 박힌 城械의 단련 / 涼味乾燥
한 그늘의 놀이 이젠 심정증이 난다 나는 오늘의 단련이 끝나는 단련지
조차 놓치 못하겠다 물든것이 많아 意識하기가 힘들어서 밖으로 물었다 그레도
나는 이것을 참고 견뎌야 만하다 보람 있는 束脩파 나에게 期待를 갖게 된
~같음을 感해서라도

11월 11

58

P53
에서

많아 하여 이 가름을 어떻게 하면 어머님 앞에 드화오리까?

~59~
그리나 어머님이시여 / 옛 聖人의 誓言에도 誠實이면 感天이라 하였아온 주

기록에서는 너머님이 南北에는 不肖자가 다만 南北統一의 雜居이 학우
들이 일주워 치를 繼承하고 또이 바깥 國이 非單 우리 每구뿐이 아닙요
우리 三國은 저 데의 마땅은 바 단진대 南北의 忠貞이 三線이 분야진은 날

설로 넉과 놀 그동안의 회포를 풀어볼까 하옵니다

조선국사 朝鮮國史 비통는것은 너머님이 仁義廉節 찬란을 보신고 기뻐하셨던
처지를 품에하면서 청진의 遺疏와 우리의 命運을 위하여 奮起奮起하는 바 업적
다 어머님!! 뜨세하신 너머님!! 뛰마나 이작을 立체여 웃는부 것으심
니까! 뻐개며 산속 친는 분을 아득 속에 차운하여 채자 詠誦 난가는
실에 무안무설하김없이 고안하고 있읍니다 친은 이민몸에 뜻 같은 速記 速記 俊校
을 본 懷素이 習勤을 하였으니 어머님의 不忘之 德인가 황홀이다

이상으로 명후 봄 속장을 탈고 저의 소식 送來와온니 王孫 萬安 친침을 떨뿐 냅니다
단기 雖然 年月
조선子 K.H. 2016. 4. 1. 물림

義理生

禮會

○口脣은 故養이 豐豐 義理도 豐豐이 有

大食小食이 大益小食이 以食生者이 有

靈體와 靈體이 灵體을 離體이 有

其生矣 하며 合因生 生君을 합하고 있다

數日而 떠民洞 떠 用休이 有而서 莊嚴

而 口脣집에 聚集하니 口脣은 口惠之反覆

曰良知校의 同生生이다

外而이나 還境이 還境하니 莊嚴生가

종종리였다 그대로 뿐이어서 真에 찾

아직으나 真이 莫離離 면치 真이 真이

太無成既이 真이 真이 『眞眞』 真이

清貧而 節儉 恒斯 慈以惠而 仁君이다

施捨이 가까운 대로 아직 창가로 드는 福로

嘉慶바이자 촌자이자 주원하가 用無才夷

이 암자 老母親이 仁母母를 보통

경우 깊이 충 있는 모양이다

靈魂 유허가연에 앞내 有 有을 잡고

이 암기동한 無々 無 후 어머니를 털어서

약본으로 旧語를 莊嚴하

호 험在 無體도 無體이 원인外 有外

서 미칠 기적이라 는 것이라

多病而 即病 『眞眞』 真이 『眞眞』 真이

보마간의 까마 밤상당 책상의 별처럼

있었지 빼고 신분 짐작도 희생 위에

나이로 그림의 墨筆이 물어았았다

墨水之 斑斑히 我想是 真 爲了

였을것이다 真 爲了

生花化의 記憶이란다 肖像大作이 被

는 展覽을 試하니 全은 엄연히 被

요 看者요 聾이 말로 人博覽會에 被

가 評定하고 評定해 而以 被 認定

는 所謂는 評定 評定을 認定해 被

는 評定하고 評定해 而以 被 認定

는 評定하고 評定해 而以 被 認定

는 評定하고 評定해 而以 被 認定

본 色身을 色身을 色身을 色身을

의아하는 色身을 色身을 色身을 色身을

기애 色身을 色身을 色身을 色身을

대답이 色身을 色身을 色身을 色身을

선택이 色身을 色身을 色身을 色身을

답하니 色身을 色身을 色身을 色身을

선택한 色身을 色身을 色身을 色身을

하기에 色身을 色身을 色身을 色身을

를 色身을 色身을 色身을 色身을

못으로 色身을 色身을 色身을 色身을

진짜 色身을 色身을 色身을 色身을

였다. 시험은 시작되어 철학에 매우

잘 능이 노력을 부르는데 뜻하는 속

가하고 놀래를 어제 풀불을 차 끌

을디 껌한하여 잘한한한 많(廣量)

이 편을 차 가고자 금차 풀불

이 죽습한 놓이 잘하고 잘하고 한

하고 신종기양으 모을 하였다

그 다음에 빠죽재간 놓이 놀래를 차

트니 희생(死生)의 밤을 잘해 술가운

이였고 단순하게 빠죽(死) 만물으

니까 산중이었다 신합니(新合)나

꽃들은 뿐재(繁財)의 풍채(風采)만을 기

아하고 았었다 암우재간 놓은 잘

걸리로 꽂한 토 몽을 늘리았다

꽃했지 그다 빠죽의 놀래

산조롭기만 암우재보다 더 꽃했다

죽은 새하나 가하고 청(淸)에

풀풀(풀풀)이 수 있는 이에게 꽃꽃을 내렸지

풀풀(풀풀)이 아리다 암우재로 풀풀(풀풀)

모자보(莫子保) 풀풀(풀풀) 풀풀(풀풀)에 떨리고

不堪(不堪) 가겠는가

영우재와 덤불이 풀풀한 풀풀을 아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빠죽재간 놓이

신합전(新合店) 풀풀(풀풀)

그다음에 허(虎)를 많이 賦賜한 허

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이기를 흘리 속종대왕(宿종대왕)의 그 일을 날板

고를 提不하여 파리를 보길하였다

신합(新合) 앞에 신합전(新合店)은 두루한

賄賂를 받았지

하나 죽은 사람과 둘은 신령과

네 '술'과 신령과 함께 술(膳)이 끝

한 심사하겠다 諸鄉의 속을 차릴

라함 분부하신 것이다

구이트로 친구에 있었으니 我無壁

아 달 편의장 前日의 서방이

숙취하였다.

같은 친구가 무역 我無壁을 알

삼감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뒤에

我無壁의 이야기이라 P君으로

은행에 축적을 하다가 前記와

같은 맘으로서 꿈이 되어버렸다. 열여덟

능통하기에 모 능통기와 함께 하려고 가

마루에 끌어 왔고 그 위에 모금교 묵을

하였다가 뚫은 그릇이 되었다.

이사람 암만 무엇 무엇하고 개끌기

있어야지 하하

있어야 P君이 이 이야기를 하니 P君의 서분

인 심경을 봄수 있었더라

P君은 개구리쓰는 것과 그들은 출입을

하지 않았다. 헛되니 하기야 P君은 티

말이 흐흐 냄새를 냉대 걸리었지

만 살기 마련인가 보다

第三人間型

李良亭

꽃이나 좀 치는가 어때요?

무덤이나 비취주자 뭐 나 말을해 봤

발을 밟다니 남여지 성연의 천수 조

차 말려버리라고 으사나는 눈 반

여 주는걸로 감사하네

어느날 내가 산전배의 쓸쓸한 절을

방문하였을때 철옹 훌려나간 어복였

다 그대 그는 나미처의 차라조^{차라조}라는

이렇게 말한다희 페이지를 힘 없이

닫았다 친후부터 산전전의 일기장을

연습^{연습}에 이 살피았는 이야기를 쓰고서

한다 왜그려나한번 짐승서울의 어느

연기 차울한 타방에서 그의 파거의
세계의 심연 아니 뇌로운 설술의 면

장으로써 또 다시 무학 하로 하로

를 보이고 있는 산전배가 이글을 본

다면 틀림없이 결문뿐것이며 나마자

후의 불쾌감을 가질는지도 모르겠다

왜곡려나하였는가 이글을 본다면

그는 우울해진것이며 쓸데없이 옛날의

삶처에 새롭운 삶처를 꿈꾸쳐 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마 현재 이사각도

그가 짐승 차이하고 있는 공간이 그의
생각하는

인생에 있어 제일 오소가 됐다 고말하는

것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창복한 전운이 지평선위를
되가는 거론 구름같이 우리를
의 기억속에서 멀어지고 모성
의 어운이 흘러가버린 여인의

술을 꾸같이 거울에서 희미한 걸
적어 나는 그를 미존에서 알
게 되었다 흔히 병적인 시며
정신이란 천생의 삼상았다 이
것은 종상도 없고 비극적인 것에
서 놔두는 골心境인 천재의
후예인 자로 모른다 물론 각성한
醒의 천상도 꽃같은 날은 날은
배를 전자의 천상이라는 틀 속

에 봉고식과 절망속에 친비와 쌔름하는 그를
출로 脫國하는지 떠나버린 일 밀는 친목로 전면
그렇다고해서 이것을 선왕의 벼명으로 살을
살기는 드디어

그의 얼굴은 창백하였고 파리한 그의 육체
양육은 그때 살결은 뻐어있었는지 같아
서 만만 나비 삼십리를 장유수롭게 구사하
고의 의식 삼백와 세백의 흙흙을 잡아가 무
한이 높은 가마로 슬금슬금다면 거기에 남
는 것인간 전화 절망과 도피 표독 빼어 날
리하고 한는 성악을 험한 풍경리라.

미손과 조급떨어진 산수와 외로히 연기로
김주법하게 풀을 이고 기우려 가는 그 조

만한 담첩에 그려 머니 또 옛
누의 동생이 그 한 가정의
전부였을세다.

그의 떠돌신에 대해서는 말하
고 싶지가 않나 왜 그러냐하면 위
鄙한 삼천에 반을 절하는 것
아니 미친가지 기질뿐이다 내가

그 선발을 빼면 찾는다는 것은
한 줄더운 낙으로 생각된다
암우리 무선은 고통도 생각
자연 참 겸미하여어서 그 장
래에서 벼서 날면 그것 미신
걸레가 우리 말을 찾으셨다.

흔히 황혼의 불운장악이 서쪽 하늘을 물드
르며 그를 찾는다 이 예사였는데 그의 집에서
여기 가 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였다
그럼 집에 있었을 나는 무목소하게 말했다
눈이 물통한 것은 겨울의 일 겨울은 오후
않다.

오빠 친구가 찾으셨던 그 누의 동생의
목소리다 암마 아들 잘들 자고 있는 모양
이다 그 천 달보에서 나는 놀라기로 많았다
금

무신무신하고 그네 산간을 찾다니 놀라
았던 끝에 벼리면 어찌가 할 참이신
사람이 있겠습니까

까진은 무었인가? 이 사람!

놀을 비벼며 그는 말을 이었다.

고령한 잠자리가 젤 좋거든!

파자현제 미리를 생활후방지가

말하자면 죄악을 알반한 말이세

그럼 그간은 나에게 가장 비아직

인 자살권 시각이라 네 그 번체나

한 작의 저녁에는 방향의 다양

로 그의 차 톡탁이다.

국경지만 지나친 잠이란 성질의 무

위한 소모가 많을까요 나는 이제

설득하는데 쓰고 뛰어만 심술한 철학을

딱자간은 것은 안녕하고 또 남장을 둘

리를 찾고 악고 단순히 부끄러운 면

견인진은 목표지만 우리의 생명이니

감정처럼 자책률을 기록에 비유함

하다가에는 못하니 써야지 낙관적 많

으면 놀이 습지로 그려면 못쓰게 진

단 말 냐다.

농담이겠지 국경촌은 거친 찾으러온

이성의 조각에 지나지 못해 가족과

동료가 하니 열론의 부정부대 더 불

한군 군 솔itude 충고는 이전 종

분 하네 그건 찾고 죽자 생각보단 딱

마비된 놀이 아니란.

한번 말한 것에 우연이란

이 떳다가 그의 가장 능숙동표리를

마

잘난 모양이었다. 이런 풀어없는 차이
비록으로 그를 괴롭히 것을 잠금도

나는 유희하고 있지만 그의 대가된다.

마치 거인 풍류 낙화 맘을 염체나 이
여기 하였을 것 같다. 그러나 허리 있음을

한때 나의 노에 대한 물이 허성에서

비번 일자석은 호복지가 있었던지도 모

를 친한 한번 내가 이런 말을 해서

그를 괴롭혔다

나는 이제 모든 사적의 풀어것 같은

데 나에게 해복아야 되기 때문이었고

나는 드와 깨끗이 죄송 되었지만 표

행각 주의자 양작楊子軒 말하기를 빠져
을 사는 삼촌은 천율에 하나도 남과
가령 있더라도 철 모로는 어린이 철

서 낮에 헌연없이 기쁜 것은 뻔뻔
미술보관 도 병들고 거정 은심 하는

풀을 떠날 신복밖에 절대로 사는 시

동안만 친선하게 살고 죽어버리는데
좋자는 근상 철과의 극락진은 사

듯 것 자체에 친형과 조화가 있었겠습니까
데는 그의 청탁을 밟아온 노부상과

별세 나의 말에 대해서 전자 해서 繁
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에게
직접으로 감사하였다

이런 날은 막걸리나 머센 亂 선배나

또 이 부락의 젊은 친구들의 유연한
날은 틈空 박걸리에 남소 그렁치으면

농촌은 죽업의 풍경이다 같은 밤 종
의 개짖는 소리가 아마의 울부짖음
같으나 놀이 나마다 자연의 생명의
맥박은 휴식을 하는 것 같으나
이것봐 人 친구 술을 먹으면 나의
이성은 마비되어 화려한 상의려원 자

활 것이다 특히 자각 단계여선 청년들의
후후 뒤의 틈空 둑이 문어지는 전후
에 오는 퇴폐적인 정신상태 이것은 영

말야 오만은 이성이라는 구속하는 것
위대문에 정복스러운 감옥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레 니하체 의 책속에 디

종 전염병 철령 우리 사회 전반의 병

폐가 되어버린 듯하다 그의 누의 동생이

술을 받아왔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전
장을 걱정하였을 것 같으나 결혼 거울의

생각에서 가 아니고 새로운 남모를 혼

속에 부어놓고서 산어시라서 물론 예의
자니까 “거기에는 외로움과 고邈과 빠리가 있었지만…… 낙랑과 비나도 절을
이야 그라니까 반향도 있고…… 전찬간
에서 흑운 총강에서 명어 죽었어 달이
풀의 여도 밤내 그리하여 월서에서 이
상도 품어보고 마차 화려한 예언의 품
같은 청을 …… 이제 남온것으로 침략 전쟁
…… 아버지의 죽임…… 폭격……
…… 과거…… 거지…… 방랑…… 구걸…… 장사……
…… 헐값이…… 그럴데 이게 전쟁
…… 않이 살육위에 벌을것…… 동성을 암질

나는 그의 말을 떠었다 그는 상당
히 취했다 나는 이제 그의 말을 듣
지 않고 있는지로 보록다 그의 마지막
날 말의 발음에서 그의 목청은 처
량하게 떨리었기 때문에 맵것로 보는
그의 아름다운 늑의 동생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것을 추축한후에 떠났다
아니 벼이 머단이 죽어졌다 남매로
기자 유령같이 밤에 잠복한다
앞풀 앞풀에서 들려오는 오리속과가
굉장히 늦었잖아!

윤금 귀나 파건은 시간이란

별풀에 보아서 가온 낙지 찬화송을 험

어머니의 봄밤 치며 아는 소리다

들 무순 소풍이 많아 그것이 또다시 아

신번은 이 말에 고통을 느쳤을 것이다

구에서 되적이 되여 셀동묘 육지가 됨

새로 한사가 넘 많아 우리의 육체

무엇이 되건 판여한께 많아 새종은 뚫은

는 죄가 죽었자 청진단이 사라졌다

물 흘르는 것을 보아서 쌓아되고

는 누끼비 나리는 소리가 침엽을 손꼽

아득 깊은 소리 옛날에 생기라고

별죽 소리 뿐이 소용이 들린다

하도 깊다 그의 블라 밤전 손으로

나는 이커섰다

자 들을 때 노래 손는 가볍게 떨리었라

내일 학은 뜰 희망한 또 블론 블리

나는 불안 가웠다

진그가 인사 면면 많았라

민체를 그만 차지 러리를 절친 삼

나는 빌을 거리며 운길로 산을 넘었

둘 말아라는 것이 많았던 것인지 백

다 걸본 청중이 까아온다

년을 떠나 보아과 산한 틀 생기나

깨인지 부모이자 물로나 날을 블득나

… 알라가 와한는 들판에 앉자 숙운 주의

우뚝섰다 솔이 칭취서 블을

별미 대기 죽육과 흰 돈 쿠치리

어느 날 허 물었다. “이 험연 일어나고 하
친구마다 그 친은 드물어 몇 절을
다니었나” 놀라워 목식이지 본산 할수록
마음에 살피었지 않을까. “선辈
참람용의 용기는 신기는 벌이다. 나는
발로 탕을 헤웠다. 둥울을 잡으려는 삼
산이였지만 그러나 그 친은 둥울을
쫓아온다. 차를 갑주와 편동이 나는
희망하고 이마의 탐을 씻을뿐이었지
열여부인은 충족한 점은 산속에 나누
걸을 소리가 신비로워 들리어 도와비
로 날을 것 같은 듯한 감동은 물

12~

같고 이 둑에서 입는 별린 간연
속에 온갖의 파리한 선명이 많았
때문에 살피었지 않을까. “선辈
점과 대의 쌍학을 하보자.” 절에
동화가서 활을 못이루워 단폐만
하려고 헤웠다. 헤웠던 헤웠던 헤웠던
나는 나는 그의 앞선으로 헤웠다.
의 모 친집에 헤웠지 헤웠지 헤웠지
다시 헤웠지 헤웠지 헤웠지 헤웠지
백의 달빛과 변한것이 아흔 하늘도
없다. 그러나 선배가 이 헤웠지 헤웠지

그리 여간을 끌지 터히 셜로운 생애의
황후를 설계 중이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를 동정하여 한탄은 목이 미어
도록 까지 운노하였자 단두기도 하였자
또 그는 독서로 저녁을 아끼기 좋
았다 어려운 밤 나는 그의 벼슬을 맛
나 친구으로 위를 헤아리자 단정한 그
가 유파에 대해서 어려운 밤에도 나드니 차마
였을 때 나는 기묘한 범물들을 누리고
고 자살로 그레임을 선각하면 강승이
여미워진 것 같다. 얼굴에 땀기는 없
잔 그의 얼굴에서 치명의 뿐만 아니라 소
침에 나는 울며 만흔 저주하고는 들키고

여러날 밤은 나쁜 밤을 섬은 터.
설법에 눈을 부비며 산으로 물과 가
구자리를 걸작화 묶어 모른 산천
속에 물이 물과 서로운 생명이 용
소슴치는 것 같고 바자는 일종로 흥겼
어 마치 인간의 삶 속에서도 물이 오
른 것과 별리 들에서는 수증기가
자족하게 올라자니 드러운 어름의 오
후 괴수원 밤나무 밖에서 그와 나와
는 책을 펼고 미리를 속상화하고
러나 ┌선법 그린 배기에는 아이의
설하하기 때문에 나호자 참새가 되는
것이다.

4286년 겨울이 또 왔다 나는 이
설원엔 늦기 종이 날 정도로 어서 출여
행을 한 뒤에 부산행을 경유 한국 영유
여 한국 번째를 방문하였다. 찬물을 맞을
구나 없으신 이에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앞말로 염이 지나도 더 나았
다. 날로 풀 한국 많아지니 날록은 환한 상
이어 라는데는 아름어 속으로 미친 채 어
잇자 해동 한국 햇이 빛 무렵 간단한 여장으로
크 한국 봄을 고별하였다. 이 과학 계산은
의 량양이 둑 한국 꽁개 물드래 한국 나의
성명도 하늘과 달에 올라오게되었고 나의
이성이 긴 동면 한국 눈을 부러 침미 받으

며 또 황주 한국 한국 선배의 암탉을 촉
촉하였디. 그리하여 탁수한 품삯이 넘
나들고 흰 감매가 춤추는 남도 한국
무른 바다의 만경창 한국 賞 한국 賞에 풀을
안기자와 날로인의 전설이 자결 한국
하며 희망과 행복의 광상곡을 데부
하고 추방검의 추파가 침침한의 삶
에 딸도를 이르렀더니 날은 지식의 고
루에 꽂을 되었자 내 가슴이 점을
구름이 거기 시작날며 나는 또 다시
넓어의 물결에 물을 삶이 헤친 나날
으로 향하였디. 행운의 한국 한국 운성으로
연연이 스크린의 환면들이 지난 휴도

다시 수도를 찾하여 봄을 살았다 또
다시 『선배가 그쳐 『실』을 들려와
우리가 그의 친구를 만나서 그의 것
를 빌었을 때에 기다라 구휼과 허망으
로 접을 찾았다 며칠 영문이다 그는 반
가파서 자기 려진 『마나』를 찾았다
『마나』 좀 맞다니 험주세운 그대 그의
열에는 술은 표령이 범계를 이 흐른다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날
다 친구가 옆에 써기 때문에 주저하였
다 뉘의 험은 삼종 말이 밖이 무릇
못서 간을 못하다 목이 미었을지 달이 없
다 물건을 찾으러 말로 이왔다

오빠는 그려 고개로 이에요 뻔한들이

방법하니까 복자로 마세요

『마나』 하자마세요 『선배』 떠문에 일
본터 들었으나 한고 아직까지는 들을

않을 자랑하고 싶은 선배니가를

『실』은 저도 보기 원들하오 부끄러운

말이건만 그가 심복을 꾸에게 두었을
말로 하여 말하고 싶지 않았지 때문이다

『마나』가 끝을 것이다 진흙 린 탑망
에서 청학서의 너 열매이지 큰 담
고 았는지 모를니깐 그의 친구가 말
했다 단 담을 약속하고 그 혀

집니라 이곳 서운데 기우는 일들이지

나까하고는

집니는 5리히기 둘러싸여 농경농가
선을에 물이 달과자들은 암도와 죽고
된다. 그의 멀리서는 청을 찾은 손을
드쳤다. 나는 떠슬퍼지 만 달을은 달

제가 아니니

히 달과 까 창을 찾았지. 그 백도 그
후 많아 떠 면 찾았지 찾았다. 유흥처
울에 낙화 천을 찾은 손을 5리 달
에서 찾지.

집니는 달과 농경농가로 농경 농부 달
이 바뀌고 농경농가가 청을로 차기 되었
길을 베어나고 살았고 빠져나온 살피니
온 것은 제네리 이 손 수고 땀도 남았겠지

고리. 지난날 새집을 짓고 숙식을 즐
은데요 그 화 난는날 선술집에 듣기
자 듣기 같은데요 그리 많다 돋이문
제가 아니니

집니의 면을 찾았지 찾았지 그 그
본에 앉아서 숨쉬는 환 변화지 않겠네요
혜에서 떠 딸자막 한 그의 푸박이다
아직도 그는 부축을 친하고 있다. 이
간 세끼에 걸쳐서 그루를 낸
한 헛한 찾은 물은 절히 많아 자를 못 찾지
있고 드물게 나온 드리나 내가 가족들이니
열로 속에 뛰어들어 조각 친것이 많았다고

여울은 물을 맑았고 새가 날다 또 그것이

인간 삶에서 얻을 것 같았는

나는 그 물을 존중하기 때문이

나의 정신은 나마음대로 헛자간 화목

에 죽도록 했으나 혹시 여기에 오셨어

있으나도 그들은 높은 도량으로 깊이히

한들 그가 어떤가 감히 보송 드리지 않으나

이 그의 마지막으로 그들의 뜻장을 봤

니라

1959 3 16

———
———

金言

快樂을豫想할 때는 樂이다

(렛 쟁)

죽음 단지

病身亡而速記學生募集
募集會食無制限男女中性
流傳發記左記名號에故當한들者

舊國結種

右子病身

白喉

入學王觀 医師印診書有記音
醫書接通 菩提半道病死市連監校

募集期間 自石者生時
至各君收終直前

修業年限 自入學日
至刊禮之日까지

特典

修業有免除

病复发에 회복할 때
가장 먼저 생활보장

海外留學 장학
결혼仲介(결혼가이드)

病身年病身月病身日
病身式 명단리速記學校



-1-

附

錄



一
學校沿革

本校設立以前由 奉國形然多 題寫 紹介社 補記四三年川邊渡基耶率
創立多 由多速記表多 五九年九月由 速記多 速記士養後多同
設計四三八年 三月第一期生 九名由 校舍進步 人行多 五年十日 第
二期生由 奉國形然多 四八年十月由 十二名由 奉國形然多

本校設立 欲基耶 人生由 直接 指導外 有情形 困難計開列여 四八年九月
鄭澤道 金鍾基 丙奎由 楊善多 第二期生 五名由 六月六日 五
月初由 金鍾基 中斷하게 列多之不이 七月 本校之四八年十二月一日文
教部長成以 誓可度由 教育濟川 附註 高等技術学校 附校式之 善行設
立外 第一期生 四八年十一月中國應募由 司參拾×名甲九九九由
新入生由 選拔計四由男女共五十五名 五年計之 世祖校舍 因缺多 不樹心二
級別數授多矣他望之不外 行四八年三月一日 一制放授差 機密計員

四八尋十日에 素以名이. 素坐을 대며 그는 懶秀社 謂記士之 國公 韓國銀行
通信社 警察局等等이 進學시키거나 畢業장을 授장하고 外始在期장이
音中射의 太幕者 二五三名으로서 乃後是进級하여 獲中. 許可자로 부터 주어
신호로 濟部하기 외 地域因多와 素生 直射의 遷都直射 無不得之를 드리고
情射을 받고 濟州道을 유례되거나 때 四八尋 三月에 素居에 素
人直射 太幕 素射之射의 乃한 優秀者 乃記士之 日公 久朝辰 以醫射
射 乃記士之射의 乃記士之 茲直射 三九六名의 太幕者 中射. 七名에 빼
秀射卒生卒 連坡하여 現在本校二民以 賦稅為役에서 二三名이 素射射
冒卒 吏八人年音이 역서 三五名의 太幕者 乃 三名을 諉相하여 重定其
置行 素射 素射 本成以 證相을 초방하여 一般被分多寡 故相하여
을 때 일정을 드리자.

大韓遠記高等教育與殘同憲會會則

第一條 名林朴 務川

本會之大韓遠記高等教育委校同名林朴

第二條

(目的)

事務所七 大韓遠記高等教育委校(本校)本校許林朴)以成

第三條

(名稱)

本會 倉庫司 資格之士皆可

第四條

(名譽外義社)

本會 倉庫司 資格之士皆可

一 正會員 本校修了生

第五條

(名譽外義社)

本會 倉庫司 資格之士皆可

一 正會員 本校修了生

二 會員 級付

二 會員 級付

三 実地 謹奉此 決議社 事務

第六條 本公司 價算外 並數外 遣任方務

本公司 會長 一名 調會長 二名 幹事 錄若干名 並若干

前項外 徵選之 總會計付 正會計中會計 並若干

稅課外 任期之 一至五年

第六條 以國外 任務 會長之 本公司 代表計二 會務員 緩理 監督計外

副會長 會長之 委員計四 刻起 由正會長 代理計外

幹事之 會長外 指算委員由本公司 從事計外

第七條 (名譽會長) 本公司 之 名譽會長 一到之 會計 本校 代表各 本校 代表各

第八條 本公司 之 諸同 草稿行文 签字以 訂頒同之 名譽會長 由委派計外

第九條 總會及 召集 改事選舉方務

總會之 交期 總會及 諸同 諸同 會計 之 會長 由 每年
四月半日 召集 計外 諸同 總會之 會長 由 必要多 諸同 計外 之
會員五分之一以上 草稿行文 签字以 會長 由 會員 通牒以 會員

前略의 召集은 日刊紙 및 라디오를 통하여 적어도 一週日 前에

公告한다

總會는 正會員의 過半數 出席으로 成立되어 正常會員 過半數로써
故決計다

第十條 總會의 權限

總會에서는 左記 五項을 計敘한
正會員은 予算과 財政에 關한 五項

二、二
會則 改正에

其他 財政에
其相 重要 事項

庚社 五項

(以 上)

第十一條
正會員은 入金을 預付하여야 하며 入金을 金長이 管轄會長과
其相 重要 事項을 會則에 依하여 其他 金資을 徵收할 수 있다
但 相談하여 決定한다
總會는 決定에 依하여 其他 金資을 徵收할 수 있다

同窓會 正會員

名錄

現職

現職

現職

現職

金权李禹韓金姜金鄭成金英寅韓字雀李金張林金宋鄭姓
鐘在貞吳基舜基枉二承斗圭相振吉英信高壽朱貞

麥金淑愛王秀植俊景慶男大義龍慶子昌洪弘吉潤名同
慶慶忠慶咸平慶平慶慶全咸京全平慶黃本

南業南徽南南業南南業南業南業南業南業南業南業南業

學學梨學文會學東韓學公學國學國學
花通社務防學生通銀生貧生部
生生學生部員生部

國會速記士現職

黃車鄭尹金姜刈金朴趙李金金朴金李金許朴金李金准姓
貞和順南允成塔哲日寬印春熙魯敬相京守應復相映
媛惠王鉉朱福吉亨米享熙盛王宋嬉憲善寬烈桂元善養
富忠平忠全富金慶金昌平忠慶朴慶咸慶平江慶京本

現職

現職

現職

現職

金权李禹韓金姜金鄭成金英寅韓字雀李金張林金宋鄭姓
鐘在貞吳基舜基枉二承斗圭相振吉英信高壽朱貞

麥金淑愛王秀植俊景慶男大義龍慶子昌洪弘吉潤名同
慶慶忠慶咸平慶平慶慶全咸京全平慶黃本

南業南徽南南業南南業南業南業南業南業南業南業南業

學學梨學文會學東韓學公學國學國學
花通社務防學生通銀生貧生部
生生學生部員生部

國會速記士現職

黃車鄭尹金姜刈金朴趙李金金朴金李金許朴金李金准姓
貞和順南允成塔哲日寬印春熙魯敬相京守應復相映
媛惠王鉉朱福吉亨米享熙盛王宋嬉憲善寬烈桂元善養
富忠平忠全富金慶金昌平忠慶朴慶咸慶平江慶京本

現職

現職

現職

現職

孫白全申李少林吳楊高楊鄭尹善文申朴徐
姓後廷範正載正偏吉湊大明寅奎萬仲兩慶萬
名

德故成子一月也以庚寅歲中始摺少健健而

努力 朴忠慶京萬忠慶朴忠京平慶慶忠本
國會議員國會議員國會議員國會議員國會議員

努力

의別名이

天才

才

(Edison)

國會議員

八軍司令部

法學會現
教部生記士職

李共善吳全徐全李金金金系全宇鄭全
姓蓮秉秀仁東百秀祐詳京得貴安東貴相

紅基王憲基坤基信義培子珠聖淳叔順振
名

平慶忠全慶京忠忠朴金忠京朴忠本
國會議員國會議員國會議員國會議員國會議員

國會議員
國會議員
國會議員

國防部

國國雜
公公會現
科速記士職
負記士職
社職

以

上

X
同窓會 名譽會員

現 前國會議員
國會議員秘書長

備

國會議員秘書長
國會議員秘書長

總裁
總裁秘書長
總裁秘書長
總裁代
總裁代
總裁監
總裁監
總裁監
總裁監

今

國會議員秘書長
國會議員秘書長
國會議員秘書長
國會議員秘書長
國會議員秘書長
國會議員秘書長
國會議員秘書長

衰

衰

朝鮮通信記者
國務院通信記者
外務省通信記者
在地主性不詳者
日本通信記者

莫
莫
莫
莫
莫

平治本業業者
平治本業業者
平治本業業者
平治本業業者
平治本業業者
平治本業業者

卒業生 名單

(第四回)

備

青

鄭朴孫鄭襄金俞洪李金李林金全李崔金深崔深金尹姓
禮數弘熙寔寅龍奉憲東林明明鍾川京金明海映任名
會亨基慶朱善根朴鳳連一相然朱均重玆順叔叔朱少

竹作
音川
特制
別進
市青

本
區
區
區
南
区
新
倉
庫
洞
五
九
零

東
路
區
達
新
山
洞
五
五
四
一
二
街
七
〇
五
三
斗
四
一
七
〇

内

徐韓黃姜李李朴梁張
平弘圭允抗良勝基炳
吉男媛珍煥淳世興兩

全業
社善特劇市

南根郡帶江面新德里四四
中区光熙洞二街二九五八

朴永鑑
楊坪洞十三

龍山區元陽路一街一〇八
中区芳林洞二街二〇一三九

鐘路以鐘路四街一三九

永登浦区新吉利村五
鐘路又新二四一十三

同憲會

國會總務處
速記課

(本)〇九四七

우리의
盟誓

大韓民國의

아들딸 죽염으로서 나랄을 지하자

우리의
呻吟들이

困縮하여共產侵略者를 헤부시자

우리는
白頭山

靈峰이 太極旗 남리고 商業統一을 完遂하자



編輯白記

우리百姓의 伊未遠한
携拂外 遠憶之而

携拂外 遠憶之而

情外 仁友評曰漏落之謂
誠以人 積拂外 純同上 舊

之矣而此遺感是生覺
計而 以冊而 發刊之有計而

陰으로陽을協助해주시니스

게 深甚하려 謝意를表하

승님을과 아울리 學友之에
가 七叶外

이번만은 訓다운처는
마음이보겠나고 訓개우

을내면審신부터 간후에
되었지만 토이끌이회보

나 七叶 者素을 複舊
하기 故하 俗習故이
稿을 냉정 俗習 송남
을부 常友을에게 惊懼
스며 짜이 많다

이 苛難가 쌔우며 이
는 翻手없는精일

舞단한 時月도 時
치가사 아나하나
墨墨을 빼우는 舞이한
半時이 빼울 舞이
倦怠와 산우면서 舞

繫華苦에 堪耐其間也
별별로 편한 이 一
종반에 웃어웃기 편히 대
부분이 落蕪有不 疲弊
부자이 證明하기라
이 苛難가 쌔우며 이
는 翻手없는精일

金本合孫弘基
編輯部員
七叶外

金本合孫弘基
七叶外

發行年月日 檇紀四八年三月二十日

